



S-OIL 리더의 일하는 방식

책임과 권한 위임하고 중간점검과 코칭으로 실행 돕기

모바일기기로 QR코드를 찍으면
움직이는 표지와 관련 내용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S-OIL 리더의 일하는 방식

- **WORK EFFICIENCY**
WORK & LIFE BALANCE
업무 지시는 6하 원칙에 의거 명확하게 한다.
직급별 순차 대면 보고보다 이메일을 통한 동시 보고를 적극 실행한다.
사전에 약속된 미팅 시간을 준수하고, 비정기 회의는 최소화 한다.
- **OPENNESS**
CREATIVITY
직원이 먼저 말하게 하고, 끝까지 경청한다.
새로운 제안에 대해 적극 칭찬한다.
회의 시 모든 참여자가 자유롭게 의견을 말하도록 보장한다.
- **MUTUAL RESPECT**
HORIZONTAL CULTURE
직급과 나이에 상관없이 예의 갖추고 배려한다.
보고의 긍정적인 부분을 먼저 이야기한 뒤 보완을 요청한다.
직원에게 주어진 업무와 무관한 개인적인 지시를 하지 않는다.
- **EMPOWERMENT**
CULTIVATION
책임과 권한을 위임하고, 중간점검과 코칭을 통해 실행을 돕는다.
직원의 모든 보고에 발전적인 피드백을 보내준다.
직원의 직무순환을 적극적으로 실시한다.



NOVEMBER
2019

VOL. 456

COVER STORY



EMPOWERMENT CULTIVATION

책임과 권한을 위임하고
중간점검과 코칭을 통해
실행을 돕는다

한나라 유방은 병참·전술 등에서 참모들보다 크게 못 미쳤지만 부하들의 역량을 믿고 분야별로 전권을 위임했습니다. 또한 긴밀한 소통을 통해 동기를 부여했습니다. 미국 IBM연구소가 64개국 CEO 1천7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탁월한 기업성장을 위한 3대 필수요소 중 하나로 '권한 위임'을 꼽았습니다. 탁월한 리더는 각자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직원을 배치해 권한을 위임하고 공로를 인정해 조직 성장을 견인합니다.



변화하는 우리

- 04 **핵심가치 히어로**
[정도] 양해나 사우(관리회계팀)
- 06 **고전 속 핵심가치**
[정도] 명경지수
고요하고 깨끗한 마음
- 08 **달리는 희망 주유소**
남원새마을금고주유소
- 10 **가족 추억공작소**
정세용 사우(장치2과) 가족
- 12 **달콤한 퇴근길**
[난 가꾸기] 정호필 사우(울산지사)
- 14 **함께하는 풍경**
 - 2019 체육의 날 행사
 - 전사 KPI 수립 임원 워크숍
 - CEO 인천저유소 순회
 - 과학문화재단 국제 학술 포럼
 - 윤활유 브랜드 통합·새 단장
- 21 **두런두런 이야기방**
 - <메이저리그> 독서 후기
 - 연구개발팀 야외 월례회의 후기





08



10



12



24



28



함께 보는 세상

24 꽃청춘 수학여행

11박13일 선율 속 거장의 숨결
[오스트리아 빈 클래식 음악 여행]

28 마을숲을 걷다

세월 보듬는 어미 숲의 아늑한 품
[남원 행정리 서어나무숲·
운봉 삼산마을 솔숲]

32 성장달력

품격 있는 아웃풋
[어휘력]

34 취미탐구생활

[정성투자형] 취미 정보

36 이달의 활력평가

11월 탐구역역 [소방]

38 캔버스 연구실

키아로스쿠로 기법 &
미켈란젤로 다 카라바조
<세례 요한의 머리를 받는 살로메>



성장의 S-OIL

40 주요 경영활동

- 2019 S-OIL 광고캠페인
- 윤활유 S-OIL SEVEN 광고캠페인
- 준법경영시스템 국제표준 ISO 19600 인증 획득

44 단신

- 다우존스지속경영가능지수 '월드' 기업 10년 연속 편입 인증 시상
-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 후원
- 저소득가정 난방유 지원
- 지배구조 최우수 기업 선정
- 울산복지재단 온산 우렁이 농법 쌀 구매
- 마포인재육성장학재단 후원
- 국내영업본부 하반기 마케팅 아카데미 교육
- 유류수송사 대표자 간담회

48 햇살나눔

- 장애인 감동의 마라톤 발대식
- 터키 이스탄불 국제 마라톤 대회 참가

49 임직원 동정

50 독자마당

치우침 없는 온전한 균형

[Sustainability Foundation] 표창자 양해나 사우(관리회계팀)

예측과 보고의 주기적 순환

기업 살림의 공간이나 다름없는 부서가 있다. 기업의 안정적인 경영회계 토대를 구축·관리 하며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경제적 기반을 제공하는 관리회계팀이다. 내년이면 입사 9년 차를 맞는 양해나 사우는 집적된 노하우를 통한 탁월한 성과와 성실함을 인정받아 올해 초 Sustainability Foundation 부문 표창자로 선정됐다.

“팀 동료뿐 아니라 현업 각 부서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모두가 함께 이룬 성과죠.”

양해나 사위가 속한 관리회계팀은 유가·마진·환율 등 변동하는 시장 상황을 반영해 주마다 경영진에 회사 손익 변화를 보고한다. 매주 손익추정 자료를 업데이트하면서 한 주 동안 어떤 변화가 발생했는지 분석하고 동시에 각 시장 환경 요인이 회사 손익변동에 얼마만큼 영향을 주는지 자료를 치밀하게 살펴 보고한다. 관리회계팀의 손익추정·분석 자료는 이사회 보고 자료뿐 아니라 회사 전반의 자금계획 자료, 노사 협상 자료 등 활용으로 각 조직 업무 진행에 크게 관여된다.





주요 공적

- ▶ 꾸준한 경영환경 모니터링으로 손익 예측자료 보고
- ▶ 기간 내 착오 없는 데이터 분석으로 손익추정의 정확성 향상에 기여
- ▶ RUC·ODC 시운전 마진 규모 추정으로 투자경제성 자료 제공

냉철함 속 배려는 기본

“정도 부문에서 표창을 받았는데 협력의 가치도 함께 고민하고 있습니다. 목·금요일 보고서를 정리해 월요일에 보고하다 보면 일주일일 정말 숨 가쁘게 돌아가죠. 매주 경영진에게 최신 정보를 업데이트해서 보고하기 때문에 기한에 맞춰 현장으로부터 자료를 제공받는 일이 정말 중요합니다.”

양해나 사우는 현장 담당자들의 본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가급적 시일을 두고 자료를 요청한다. 냉철함이 필수적인 업무인 반면 현장과 소통할 때는 세심한 배려를 우선으로 한다. 자료를 주고받는 것도 결국 회사의 큰 목표 달성을 위해 각 조직이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일인 셈이다.

지난해 10월 RUC·ODC가 본격 가동된 뒤 관리회계팀 업무도 더욱 분주해졌다. 기존에 추정한 시운전 마진과 실제 발생한 실적 마진과의 차이 요인을 추가로 분석해 경영진에 보고했다. 신규 공정의 수익성 측정 방법을 개선해 나가면서 회사의 지속성장을 위한 필수적인 투자 수익성이 정확하게 산출되는 데 양해나 사우도 한 몫을 담당했다. 양 사우는 회사의 중차대한 프로젝트 일원으로 힘을 보탠 것에 보람과 자긍심을 느낀다.

“회사 최대 프로젝트인 만큼 가능한 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작은 오차라도 경영 전반에는 큰 영향을 미치기 마련이죠. 보고서는 물론 근거 자료까지 엄밀히 준비되도록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성실함과 기민함으로 집중

예측과 결과의 오차를 최소화하는 데 있어 양해나 사우가 중점을 둔 부분은 맺고 끊음이다. 정확한 분석은 상념 없는 정신과 집중력을 통해 가능함을 숙지하고 업무 효율성을 최대로 끌어올리기 위해 일과 재충전을 명확히 사수했다. 재충전은 도약을 위한 심터와 다름없다. 양해나 사우는 업무 분야에 최적화된 생활리듬으로 흔들림 없이 직무를 수행해나간다. “업무 초반에는 주말에도 보고에 대한 부담감으로 제대로 쉬지 못했는데 그런 자세가 업무 수행 질을 오히려 떨어뜨리더군요. 그 뒤로 지금까지 제 방식에 맞게 업무 집중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일상이 계산처럼 맞아떨어질 수 없지만 균형을 위한 스위치를 적절히 켜고 끄는 자기관리로 양해나 사우는 슬럼프 없이 업무에 몰입한다.

한 해를 두 달 남짓 남긴 시점, 양 사우의 업무는 마무리가 아

닌 절정으로 치닫는다. 내년 계획을 준비하기에 앞서 올해 손익을 산출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각 부서와 관련 자료들을 공유하는 과정들이 수반된다. 또한 내년 업무분장 변경을 대비해 후임자에게 업무를 인계하는 작업도 중요한 과제로 염두에 두고 있다. 보완하고 고쳐온 이력을 충실히 전달해 공백 없이 업무가 진행되도록 하는 게 목표다. 일을 향한 양해나 사우의 열정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



명 경 지 수 明鏡止水

고요하고 깨끗한 마음



맑은 마음의 갈고닦음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욕망의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날, 순결한 양심을 떠올릴 때면 으레 시인 윤동주가 떠오른다. 그는 아주 작은 유혹에도 부끄러움을 느끼는 맑고 깨끗한 사람이었다.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삶이 결코 쉽지는 않지만 흔들릴 때마다 고요하고 맑은 마음을 붙들 때 인간다움을 회복하고 내 삶의 주인으로 살아갈 것이다.

공직자 생활이나 조직 사회에서 가장 필요한 정신이 청렴이다. 맑고 깨끗하며 재물 따위를 탐하는 마음이 없는 상태다. 고전 성어인 명경지수(明鏡止水) 역시 잡념과 허욕이 없는 깨끗한 정신의 중요성을 일깨운다.

맑은 거울이란 뜻의 명경(明鏡)은 <장자(莊子)>의 '덕충부(德充符)'에 나온다. 형벌로 한 쪽 발이 잘린 신도가라는 사람의 이야기다. 그는 정 나라의 대신인 자산과 함께 같은 스승을 모시고 있었다. 몸이 성치 않은 신도와와 함께 다니는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이기 싫었던 자산은 어느 날 그에게 말했다. “내가 먼저 나가면 자네가 남아 있게. 자네가 먼저 나가면 내가 남아 있겠네.” 다음날 두 사람은 다시 만나 한자리에 앉게 됐다. 자산이 신도에게 말했다. “자네는 대신인 나를 보고도 피하려 하지 않는군. 자네가 나와 동등하단 말인가?” 그러자 신도가가 그를 꾸짖었다. “선생님의 문하에 본래 대신이라는 구별 따위가 있었던가. 자네는 대신이라는 직위를 내세워 남을 업신여기고 있네. 거울이 맑으면 먼지가 끼지 못하고 먼지가 끼면 거울이 맑지 못하단데. 어진 사람과 오래도록 함께 있으면 허물이 없어진다고 했네. 세상에는 잘못을 변명하는 사람은 많으나 잘못을 인정하고 그로 인한 형벌을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적네.”

거울은 인간의 마음을 뜻한다. 마음이 맑은 사람에겐 나쁜 유혹이 가까이하지 못하지만, 마음에 잡생각과 욕심이 차면 유혹하는 손길이 몰려든다. 검은 손길을 물리치려면 먼저 마음을 깨끗하게 닦아야 한다.

핵심가치
[정도] 편

나의 고요함이 서로의 깨끗함으로

고요한 물이라는 뜻의 지수(止水)에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있다. 춘추 시대 노나라의 왕태는 형벌을 받아 한 쪽 발이 잘린 선비였다. 하지만 그는 덕망이 지극히 높아서 그를 따라 배우는 자가 공자의 제자와 맞먹을 정도였다. 공자의 제자인 상계가 불만을 품고 공자에게 물었다. “왕태는 외발이입니다. 그런데 그를 따라 배우는 자가 스승님과 반씩 가를 정도로 많습니니다.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공자가 대답했다. “그는 진리를 잘 깨닫고 있어서 사물과 함께 변하는 일이 없으며 사물의 변화를 운명으로 알고 그대로 따르면서도 도의 근본을 지켜나간다.” 상계가 물었다. “그는 그저 자기 자신을 위한 수양을 할 뿐인데도 세상 사람들이 그에게 모여드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공자가 대답했다. “사람은 흘러가는 물에는 비취볼 수 없고 고요한 물이랴 비취볼 수 있다. 오직 고요한 것이 고요하기를 바라는 모든 것을 고요하게 할 수 있다.”

흘러가는 물에는 형상을 제대로 비취볼 수 없다. 고요한 물이랴 거울처럼 자신을 바라볼 수 있다. 요동치는 생각을 멈추고 잠잠히 자기 안을 들여다보면 본래의 나를 지킬 수 있다. 남을 변화하도록 만드는 힘은 남을 억지로 강요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 본보기가 되는 데 있다. 삼밭의 쑥대라는 뜻을 지닌 마중지붕(麻中之蓬)이란 성어도 같은 교훈을 전한다. 형클어진 머리를 쑥대머리라고 하듯 쑥대는 제멋대로 자란다. 그런데 쑥대를 삼밭에 심으면 삼을 닮아 곧게 자란다. 나의 청렴은 한 사람의 꿈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변 모두를 깨끗하게 만든다. 서로에게 명경지수와 같은 동료가 돼야 하는 이유다. 



**핵심가치 [정도]를 되새기며
필사로 사자성어를 익혀보세요!**



명경지수 고요하고 깨끗한 마음

明鏡止水

明鏡止水

明鏡止水

明鏡止水

明鏡止水

明鏡止水

明鏡止水



글. 박수밀

한양대 인문과학대학 연구교수로 재직 중이며
<리더의 말공부><연암 박지원의 글 짓는 법>
<옛 공부법레들의 좌우명>등 저서가 있다.

두터운 믿음 씩트는 선행

남원새마을금고주유소

‘몽룽이’, ‘춘향이’, ‘향단이’, ‘번사또’. 주유기에 이색적인 간판이 달려있다.
남원의 지역 특색을 살린 아이디어가 돋보이는 곳, 고객과 주고받은 사랑을
지역사회에 아낌없이 나누며 ‘믿음의 선순환’을 이끄는 남원새마을금고주유소다.
남원새마을금고주유소에 대한 보석 같은 자부심을 말하는 김복근 사우(광주지사)는
“우리회사와 큰 포부를 공유하며 영원히 상생할 주유소로 단연 으뜸”이라며
두터운 신뢰를 표했다.

왼쪽 왼쪽부터
시계방향
김상문 판매원
우기만 대표
김석주 판매원
김성식 판매원
박영일 소장





남원새마을금고주유소

전북 남원시 서문로 56
063-635-5181

에스-오일로 바꾸길 정말 잘했지요!

한국석유관리원 조사에 따르면 가짜석유나 품질부적합 석유·등유를 판매하는 곳이 늘어나는 추세다.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주유소를 찾는 것은 당연지사다. 남원 지역도 예외가 아니다. 남원새마을금고주유소는 그야말로 ‘믿음 가득한’ 주유소다.

“새마을금고에서 운영하는 에스-오일 주유소라니, 당연히 믿음이 갈 수밖에요.”

남원새마을금고 이사장으로 당당히 선출된 우기만 대표는 이사장을 맡고서 진중한 고민과 엄밀한 상황 판단 끝에 중대한 결심을 했다. 2014년 타사 주유소로 문을 연 이곳을 운영 5년 만인 지난 7월 우리 브랜드로 전환했다. 우 대표는 우리 주유소의 오랜 애용고객이다. 과거 남원-서울 간 장거리 운전을 많이 한 그는 “좋은 연비를 자랑하는 기름에 무한 신뢰를 갖고 있다”며 계기를 밝혔다.

“처음에는 반대 의견이 많았습니다. 직원들에게 설문조사를 했는데 90%가 기존 정유사를 그대로 유지하길 바라더군요. 하지만 우리 주유소 주 고객인 대형차 고객에게서는 에스-오일 선호도가 높았습니다. 이전처럼 좋은 서비스와 정직한 가격을 유지한다면 충분히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겠다고 판단했지요.”

간판을 바꾼 지 닷새, 매출이 크게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현장에서 마주하는 고객 반응 또한 매우 긍정적이다.

“한 여성 고객께서는 ‘에스-오일로 바꿔줘서 고맙다’ 말하기도 했어요. 단골 화물차 고객은 물론이

거니와 특히 젊은 층 고객에게 환대받고 있습니다. 고객들의 신뢰가 더욱 두터워졌어요. 바꾸길 참 잘했죠.”

품질은 우리회사가 책임지고 서비스는 판매원들이 든든하게 맡는다. 현장을 진두지휘하는 박영일 소장은 남원새마을금고주유소의 강점으로 단연 세차 시스템을 꼽는다. 버블샤워세차기와 더불어 지역 내에 보기 드문 대형세차기가 매출 향상에 톡톡히 기여하고 있다.

“남원에는 농로와 비포장도로가 많아서 차량에 흙이 잘 튀어요. 자동세차기로는 미처 세차하기 힘든 바퀴나 휠, 보닛까지 우리 주유원들이 고압세척기로 세심하게 청소해드립니다. 세차 잘 하기로 소문나서 주유소 주위를 빙 둘러가며 차량이 대기할 정도로 인기가 많아요.”

지역사회 향한 끝없는 애정과 나눔 실천

좋은 품질과 뛰어난 서비스로도 충분히 믿음직한데 우기만 대표는 이 모든 것을 뛰어넘어 남원새마을금고 이사장으로서 남다른 책임감을 느끼며 지역사회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언제나 고심한다.

특히 우 대표는 나눔의 가치를 제대로 아는 사람이다. 남원 지역 이웃과 항상 함께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주유소 운영 수익 일부를 조합원들에게 배당할 뿐 아니라, 지역 행사 주최·지원, 사회복지시설 지원 등 다양한 방식으로 사회에 적극 환원하고 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앞으로는 저소득층 대상 장학사업과 불우이웃에게 좀도리 쌀을 전달하는 ‘사랑의 좀도리 운동’도 펼칠 예정이다. 좀도리는 절미의 남부지역 방언으로 옛 조상들이 밥을 지을 때마다 쌀을 한 움큼씩 덜어내 모아두던 단지를 말한다.

새마을금고에서 추진 중인 복지사업 전반에 동참해 이웃돕기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우리 배만 채우고자 이윤을 추구하지 않고 지역사회와 함께 상생하고 발전하는 남원새마을금고주유소가 되겠습니다.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좋은 본보기가 돼서 에스-오일과 함께하는 새마을금고주유소가 전국에 더 많아지면 좋겠어요.”



남원새마을금고주유소 성공 전략 3

1 새마을금고와 탄탄한 협업

신뢰를 추구하는 고객이 늘고 있다. 지난 5년 동안 타사 주유소로 운영되던 남원새마을금고주유소는 지난 7월 우리 브랜드로 전환하면서 지역 주민들로부터 더욱 두터운 신뢰를 받고 있다.

2 매출 효자인 세차 서비스

농로와 비포장도로가 많은 남원에서 남원새마을금고주유소의 세차 시스템은 인기 만점이다. 승용차, 대형차 세차 시스템을 완비했을 뿐 아니라 고압세척기를 통해 자동세차로는 청소하기 어려운 차량 구석구석까지 흠결 없이 세차 가능하다.

3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착한 주유소

다양한 복지사업을 통해 운영 수익을 지역사회에 환원한다. 이윤 추구가 아닌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목적으로 하는 이곳은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착한 주유소로서 전국의 새마을금고주유소에 좋은 본보기가 되길 희망한다.



정세용 사우 가족은 잔잔한 물결 이는 강보다는 파도가 철썩이는 역동적인 바다 같다.
개구쟁이 두 아들 덕에 조용할 날 없는 하루지만 웃음 짓는 날도, 오래 기억할 순간도
생생하게 쌓인다. 사진 한 장에 가족의 추억이 가득 담긴다.

추억 가득한 한 컷

정세용 사우(장치2과) 가족



시끌벅적 네 식구 촬영기

스튜디오 문 너머에서부터 아이들 말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한다. ‘딸랑’ 종소리 울리며 정세용 사우 가족이 모습을 드러낸다. 빨간색, 초록색 니트를 둘씩 짝지어 입은 옷에서 벌써부터 크리스마스 설렘마저 느껴진다. 정세용 사우의 두 아들인 일곱 살 인후와 다섯 살 민승이는 잠이 쏟아지는지 눈꺼풀을 무겁게 깜빡거리며 소파에 축 늘어졌다.

“가족사진 찍는다고 옷이며 머리며 열심히 준비했는데, 아이들이 잘 따라줄지 모르겠어요.” 정세용 주임이 첫째 인후를 달래며 난처하게 웃었다. 긴장 가득한 표정으로 하얀 배경 앞에 엄마와 아빠가 모여 앉자, 첫째가 돌연 아빠 어깨에 올라 목마를 타며 장난을 치기 시작했다. 그런 형을 보고 “헤헤” 웃던 민승이도 엄마의 어깨에 올라탄다.

“예쁘게 미소 지어볼까요?” 사진사의 말에 민승이는 엄마 장유정 씨를 꼭 닮은 해사한 미소를, 인후는 눈을 한껏 찡그린 익살스러운 표정을 지어 보인다. ‘찰칵’ 두 아들의 장난기 덕분에 개성 만점 가족사진 한 컷이 완성됐다. 다음 자세는 바닥에 엎드린 정세용 사우 위로운 가족이 기차놀이하듯 차례로 올라타기다. 인후와 민승이는 신이 나서 아빠의 등허리 위로 경충 앉았다.

시끌벅적 우리 가족

조용할 날 없는 개구쟁이 아들들

엄마 아빠는 너희들이 있어 행복해

“아이고, 살살 앉아야지.” 아내 장유정 씨가 남편을 걱정하며 아이들을 달랬다. 아빠의 듬직한 덕분에 개구진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논다.

반전매력의 우리 부부

“무뚝뚝해 보여도 실은 다정한 사람이에요.” 아내 장유정 씨는 남편이 남자다운 외모와 달리 감수성이 풍부하고 세심한 내면을 지녔다고 말한다. 반면 아내는 단아하고 여성스러운 분위기와는 반대로 털털하고 솔직한 성격이란다.

“연애 시절 남편이 식당에서 고기를 구워주는데 그 모습이 정말 사랑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문득 ‘이 사람과 결혼하고 싶다’ 생각이 들었죠.” 서로의 반전 매력에 끌린 두 사람은 알콩달콩 연애 시절을 보낸 끝에 평생의 반려자가 되기로 약속했다. 동갑내기답게 여전히 서로에게 친구이자 연인 같은 부부다. 그런 두 사람을 쏙 빼닮은 아이들은 부부의 전부다. 아이들이 갓 난아기일 때부터 목욕과 젖병 물리기, 재우기 등 육아를 적극 거든 정세용 사우는 아이들에게 최고의 친구다.

“주말에는 집 근처 운동장에서 아이들과 온종



일 놀아요. 아이는 빨리 자란다고 말로만 들었지만, 제 두 손안에 꼭 안기던 아기가 언제 저렇게 자라 씩씩하게 뛰 노는지. 시간이 참 빠르네요.”

다른 듯 닮은 복덩이 두 아들

정세용 사우 가족이 가족사진만큼 기대했던 게 바로 미니어처다. 스캐너로 촬영하는 2~3분 동안 자세를 잡고 있어야 하는데, 도무지 가만히 있을 줄 모르는 개구쟁이 인후·민승 형제를 위해 정세용 사우가 비장의 무기를 꺼냈다.

“촬영 잘 하는 사람은 이따 아빠가 선물 사주지!” 선물 유혹에 의욕이 생긴 아이들은 어떤 자세로 찍을까 고민하기 시작했다.

“나는 스파이더맨 할래요!” 먼저 나선 동생 민승이가 한쪽 팔을 주먹 앞으로 내밀며 ‘거미줄 쓰기’ 자세를 취했다. 모니터에 머리부터 조금씩 드러나는 자신의 모습이 신기해 팔 저런 줄도 모르고 있다가 촬영이 순식간에 끝났다. 동생에 뒤질세라 형 인후는 ‘아이언맨’을 하겠다며 손바닥으로 레이저 쏘는 시늉을 했다.

“두 살 터울이라 평소에 둘이 티격태격하는 일이 잦지만 또 곧잘 놀아요. 같이 유튜브로 게임 채널을 보거나 카메라 앞에서 춤추고 노래하는 걸 좋아하는 등 서로 취향도 비슷하고요.” 앞으로도 아이들이 지금처럼 밝은 모습으로 적당히 속 썩이고 늘 건강히 지냈으면 한다는 부부 소망이 사진에도 고스란히 담겼다. 



정세용 사우, 아내 장유정 씨, 첫째 인후 군, 둘째 민승 군



난 널 사랑해

난 가꾸기

글: 정호필(울산지사)
사진: 디자인소호

인연의 시작

마지막 남은 힘까지 쏟아 부어 일과를 마치면 또 다른 내일을 준비할 시간이 찾아온다. 그 소중한 여가를 위해 부단한 열정을 지퍼왔다. 뜨거운 취향은 산에서 사진으로 옮겨 붙었다. 그 길에 만난 것이 인연의 화초, 난(蘭)이다.

20년 전쯤이다. 사진기를 들고 산을 헤맸었다. 렌즈를 통해 보는 자연은 또 다른 맛이 있다. 무질서한 풀숲도 달리 보였다. 거기에 난이 연약한 모양으로 앉아있었다. 동행이 일러주지 않았다면 지나쳤을 것이다. 조심조심 채취해 집에 들었다. 살아날까, 안쓰러운 마음만 앞섰다. 그때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다. 첫 난은 서툰 주인을 만나 스러졌다.

이후 탐란(探蘭)이 시작됐다. 선비 혹은 은자에 비유되는 난을 직접 찾아내고, 잘 보듬어 꽃을 보고 싶었다. 생각보다 난은 강인한 화초였다. 난의 서식지는 전 지구에 걸쳐있다. 평지가 여의치 않으면 나무 위까지 올라가 착생하는 독한 생명력이 있다. 꽃을 호락호락 내주지 않되 쉽게 가물지도 않는다. 그 매혹에 한 축 두 축 친구를 늘려갔다. 돌보는 손에 자신감이 실리면서 10년째 되던 해에 난실을 얻었다. 공동배양장이 아늑한 지인의 난원에 한국춘란 300여 분(盆)을 두고 무시로 드나든다.

지란지교를 꿈꾸며

난은 자생지에 따라 크게 동양란과 양란(서양란)으로 나뉜다. 이 가운데 동양란은 우리나라와 중국·일본 등 아시아 온대지방에서 자생한다. 풍란과 함께 춘란·한란, 석곡 등이다. 열대와 아열대에서 크는 양란이 현란한 꽃으로 세계 난 시장을 장악하지만 우아하게 잎을 뽀는 동양란의 기품은 어디에도 비할 바가 아니다.

‘애란인(愛蘭人)’이 무수하다. 이들은 전국 단위 대회로 모인다. 금쪽 같이 돌본 난을 출품해 한자리에서 겨룬다. 이때 무명의 난이 비로소 제 이름을 갖는다. 일정한 상격 이상을 수상하면 그 주



애태워
꽃 피운 경험이
반복되면서

마음의 굳기가
달라진다



난 가꾸기 정보상자



ONLINE

한국난재배자협회

30년 역사를 자랑하는 국내 유일의 난 협회다.
전문 재배인들에게 도움 될 재배기술·유통 정보, 농자재
정보를 비롯해 관련 전시회 소식 등 알찬 내용이 담겨있다.
<http://orchidkr.com>

BOOK

<난 기르기> 태을출판사·2018

동양란과 서양란 기르기에 관한 내용들을 총망라했다.
난 가꾸기 초보자들을 위한 내용으로 구성했으며
난의 종류와 상식들을 꼼꼼하게 짚어준다.

<세계의 난> 김영사·2011

주요 난에서부터 희귀 난까지, 난 재배의 역사, 분류,
식물학적 특징, 난의 명칭에 대해 자세히 담아낸
난 백과사전이다. 수집해볼 난을 추천하는 미니백과도
수록했다.

인이 등록인으로서 난에 이름을 붙일 수 있다. 이렇게 명명된 난은 그 축을 나눠 새 분
에 담더라도 영원히 이름을 지킨다. 유전형질이 동일한 난끼리 같은 이름을 갖는 이유
다. 내가 꽃 피운 이름도 여럿이다. '청송'이라 등록한 난은 두고두고 자랑하고픈 친구다.
난을 두고 통찰 담긴 표현들이 회자된다. '주인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크다'거나 하는
말이다. 나에게 난은 '정신'이다. 마음을 주고받는다. 찬찬히 돌는 앞에 성장이 멈춘 것
인가 싶다가도 그 속에서 변화의 소용돌이를 본다. 그것은 주인인 나만이 이끌어내고
목도할 수 있다. 어찌 생각하면 흡사 자식과 같다. 열심히 숨 쉬고 자라나 오늘과 내일
이 다르다. 끝내 꽃으로 보답하는 기특함이 있다. 그 앞에 서면 자존감이 단단해지는
것을 느낀다. 난의 기개가 내 마음과 합일을 이룬다. 내리 3년여를 애태워 꽃 피운 경
험이 반복되면서 마음의 굳기가 달라진다.

새 사업을 펼치거나 영예로운 자리에 올랐을 때 흔히 난을 전한다. 이것은 난 스스로
격이 높아서가 아니다. 난과 더불어 사는 삶을 던지시 알려주고픈 것이다. 한 축을 계
기 삼아 평생 난을 곁에 두라 권하는 마음이다. 너무도 각박해 우정이 요원한 세상에
서 난과 연을 맺으면 헤어질 일이 없다. 인생 끝까지 같이 갈 친구다. 🌿



화합과 우정의 페어플레이

2019 체육의 날 행사



오전 일찍부터 현장에 모인 임직원들은
후세인 알 마하셔 CEO의 인사말과
각 팀 단장을 대동한 '하이파이브' 행렬로 대회 서막을 열었다.



대회는
단체응원전으로
시작됐다. 짧은 시간
내에 각 팀 응원을
속지한 임직원들이
상대 팀에 질세라
목소리를 높여
구호 경쟁을 벌이면서
함께 웃고 뛰었다.



본 게임으로 '색판 뒤집기'와
'승부차기', '바람 특공대' 대결이 이어졌다.
특히 승부차기에서는 이번이 속출해
탄식과 폭소를 동시에 자아냈다.
일견 쉬워 보이는 샷이 골대 앞 장애물들로 인해
번번이 좌절되자 각 팀은 격려의 함성을
쏟아내며 승부를 잊었다.



점심식사 뒤 오후 경기로 'OX퀴즈'에 이어 'CEO와 이심전심', '볼풀 넣기'가 진행됐다. 각 팀은 단체게임에 참가해 무한대의 팀워크를 발휘하면서 임직원 각자 포기하지 않는 근성으로 경기를 즐겼다.



네 팀이 교차 대결로 자리를 바꿔가며 펼친 '줄다리기'에서 '우리' 팀이 최종 승리를 거머쥐었다. 치열한 당기 작전에 대열이 출렁거리고 힘에 떠밀려 휘청거리면서도 마지막 힘까지 쥐어짜는 참가자 모습에 응원의 목소리가 저절로 커졌다.



2인조 가수 '노라조'가 초청 공연 무대에 올라 직원들 호응을 이끌었다. 객석을 누빈 가수와 '셀카' 행렬이 이어지는 가운데 앙코르 곡이 끝날 때까지 열렬한 함성이 울려 퍼졌다.



대미를 장식한 '장애물 릴레이'는 꼬마 자전거 운행과 오리발 달리기, 낙하산 질주 등으로 어느 하나 수월한 코스가 없어 승패조차 무의미한 볼풀의 경기였다. 특히 끝까지 바통을 넘겨받고도 끝까지 최선을 다한 주자에게 격려 박수가 터졌다.





변화 품는 열린 자세

전사 KPI 수립 임원 워크숍

글. 배진만(경영기획팀)



지피지기 백전백승 SWOT 분석

임원 워크숍이 10월 21일 그랜드 인터콘티넨탈 파르나스 호텔(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에서 개최됐다. 전사 임원이 참석한 이번 워크숍은 기업 차원의 핵심성과지표(Corporate-level Key Performance Indicator, 이하 KPI) 수립을 목표로 한 가운데 전일 일정으로 밀도 높게 진행됐다. 임원들은 현재 우리회사가 보유한 강점과 상대적으로 지닌 취약점을 엄밀하게 짚아보고, 외부로 눈을 돌려 경영환경의 기회와 위기 요인에 대해 집중 토론했다. 이를 총체적으로 살펴 전사 KPI 수립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세션이 장시간 이어졌다.

오전 세션에서는 글로벌 경영 컨설팅 기업인 베인앤드컴퍼니가 우리회사에 대한 SWOT(Strength·Weakness·Opportunity·Threat) 분석 수행 결과를 발표했다. 뒤이어 우리 임원들은 컨설팅 내용을 표출된 회사의 강점과 약점, 새로운 기회요인과 대내외 위협요인 관해 토의했다. 냉철한 현실 인식이야말로 미래 성장 전략 수립의 명확한 단초가 되기에 워크숍 참가자들은 어느 때보다 진중한 논의를 펼쳤다.

다양한 의견이 개진된 가운데 우리회사는 사우디아라비아와 전략적으로 협업하고, 이와 함께 우수한 임직원들이 포진해 자기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고 있는 점에서 높은 경쟁력을 지닌 것으로 평가됐다. 반면 원유 다각화 인프라와 관련 역량이 상대적으로 부족하고, 기업문화가 다소 경직된 것으로 나타나 취약점으로 꼽혔다.

한편 우리회사는 사업환경의 급변속에서 중대한 기회와 위험에 노출돼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외부 기회요인은 2020년 국제해사기구(IMO)가 전 세계 선박유의 황 함량 상한선을 0.5%로 제한하는 선박유 황함량 규제강화, 기업경영의 이익과 가치 창출 과정에 근본적인 패러다임 변화를 요구하는 디지털 변환(Digital Transformation) 등이 제시됐다. 위협요인으로는 전기차 보급과 모빌리티 서비스(MaaS, Mobility as a Service) 확대, 산유국과 수요국의 대규모 정유·석유화학 복합설비 증설 등이 대두됐다.



공감과 다짐 이끈 열린 토론 현장

오후 세션에는 컨설팅사 발표로 전사 KPI수립의 필요성과 수립의 방향성을 짚었다. 뒤이어 컨설팅사가 제안한 전사 KPI 세트에 관해 임원들의 그룹토의가 진행됐다. 제안된 KPI 항목들을 상세히 살펴 보완점과 강조점을 도출한 뒤 중층의 토론을 거쳐 취합한 의견을 발표했다. 각 KPI 항목이 전사 KPI로 적합한지 여부와 이사회 보고 수준의 중대성을 지니는가에 대한 열린 토론 역시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KPI에 대한 다각도의 검토로 새 아이디어와 수정 의견이 반영되면서 전사 목표를 향한 공감과 합일이 자연스럽게 이뤄졌다.

이번 임원 워크숍은 참여자 모두의 주체적이고 적극적인 의견 개진으로 인해 내실 있는 기회가 됐다. 급변하는 경영환경 속에 위험요인이 가시화하는 엄중한 상황에서 임원들은 의연한 자세로 곳곳하게 각 조직을 이끌어 반드시 성공 스토리를 이어나가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후세인 알 카타니 CEO는 워크숍을 마무리하는 자리에서 “우리 임원들의 헌신적인 자세와 열린 토론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위협 속에서도 끊임없이 성공을 이어갈 수 있게 만드는 원동력은 열린 자세와 개선 의지”라고 강조하며 “조직 간 의견교환에 대한 열린 자세를 갖고 상대 의견을 수용해 개선을 모색해 나가려는 의지를 견지해 달라”고 당부했다. 🌱





사기 충전 현장 소통

CEO 인천저유소 순회

글. 하종태(인천저유소)

후세인 알 카타니 CEO가 10월 22일 인천저유소(인천시 중구 연안부도로)를 방문해 직원들과 만났다. 알 카타니 CEO와 임희승 상무, 김은룡 저유소장을 비롯한 임직원들은 반가운 만남에 서로를 격려하면서 인천저유소에서 2시간여 동안 정겨운 일정을 함께했다.

이날 알 카타니 CEO는 안내에 따라 주간근무자들의 사무실부터 들렀다. 직원들은 CEO 취임 뒤 인천저유소 첫 방문에 대해 각별한 마음으로 환대했다. 이 자리에서 알 카타니 CEO는 인천저유소가 우리 제품의 물류기지로서 갖는 중대한 의미에 대해 언급하는 한편, 대한민국안전대상 소방청장상 수상 소식에 함께 기뻐했다.

간담회에서는 한층 긴밀한 소통이 이뤄졌다. 알 카타니 CEO는 앞서 사우디아람코셀정유회사(SASREF) 재임 시절 사우디아람코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기관들로부터 공정·인적 안전과 관련해 수차례 수상한 경험을 환기하면서 “이제 에스-오일 대표로서 임직원과 뜻을 모아 안전 관련 상을 수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한편 이날 방문을 환영하는 뜻에서 즐거운 이벤트도 마련됐다. 가창과 기악 실력이 탁월한 조성진 사우가 직접 기타 연주를 하며 <You Are My Sunshine> 곡을 불렀다. 격의 없이 따뜻하게 형성된 분위기에 임직원 모두 환호성 속에 웃음 지었다.

조정실과 출하대, 저유소 내 각종 시설 등 순회에 이어 기기 작동 시연도 진행됐다. 알 카타니 CEO는 인천저유소가 안전의 생활화로 모범 운영을 지속하는 것에 대해 깊이 공감하면서 감사를 표했다. 특히 입출하 부두의 안전을 직접 관리하는 주체로서 현장 직원의 아이디어를 적극 반영해 비상대응통합방재시스템과 수막 설비(Water Curtain), 유류수송차량 운전자 선적 안전 발판 등 시설을 개선한 것에 대해 치하했다.

순회를 마친 알 카타니 CEO는 인천저유소의 시설물·안전 관리와 정리정돈 상태, 비상대응 체계, 안전수칙 준수 등에 대해 높이 평가하고, 직원들의 강한 열정과 헌신, 주인의식에 대해 감동의 뜻을 전하며 다음번 만남을 기약했다.



석유화학·에너지 기술의 미래

과학문화재단 국제 학술 포럼

글. 강영옥(CSR/운영지원팀)



우리 과학문화재단이 한국과학기술한림원과 국제 학술 포럼(International Conference for Industry-Academy Joint Research Program)을 개최했다. 10월 25일 더 플라자 호텔(서울시 중구 소공로)에서 열린 이번 포럼은 우리 재단이 추진한 올해 주요사업 중 하나다. 과학 기술 분야의 전문 학술기관으로 손꼽히는 한국과학기술한림원에 의뢰한 가운데 우리나라와 사우디아라비아 주요 대학의 석유화학·에너지 분야 연구자들을 초청했다.

석유화학 산업은 우리 생활에서부터 여타 산업 전반에 이르기까지 각종 제품과 첨단 소재 공급으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영역이다. 국제유가에 따른 불확실성과 환경 이슈로 인해 석유화학 산업의 선결 과제들이 중첩한 상황에서도 각국은 석유화학 제품의 급격한 소비 증대를 기록하고 있다. 이에 글로벌 석학들은 석유화학 산업의 긍정적 측면을 최대한 활용하고 과제들을 해결해 지속가능한 미래를 모색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기술선점 효과와 기술 집약도에 따라 높은 진입장벽을 가진 석유화학 산업 영역에서 우리나라는 세계 속의 석유화학 강국으로 평가 받으며 기술 선도에 앞장서 왔다. 이 가운데 한국과학기술한림원과 우

리 과학문화재단은 엄중한 현실인식을 바탕으로 한-사우디 양국의 전문가들을 한자리에 초청해 석유화학 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논의하는 뜻깊은 시간을 마련했다. 참가자들은 최신 연구 내용을 공유하고 의견을 교환하는 방식으로 학술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석유화학을 둘러싼 우리나라 산업발전 관련 주제를 심도 깊게 다뤘다.

이번 콘퍼런스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석유화학과 에너지 기술 (Petrochemical and energy technology for sustainable growth)'을 주제로 내걸었다. 한국과학기술원의 우성일 교수과 최민기 교수를 포함해 사우디아라비아 킹압둘라과학기술대학의 니코스 하지크리스티디스(Nikos Hadjichristidis) 교수와 쿠오웨이 황(Kuo-Wei Huang) 교수, 호르헤 가스콘(Jorge Gascon) 교수, 광주과학기술원의 이재석 교수가 연구 발표에 나섰다. 패널들은 '연료전지·이산화탄소 활용을 위한 지속가능한 촉매 분석' 연구를 비롯해 최신 기술경향이 반영된 소재 연구와 정유·석유화학 공정의 미래를 조명하며 혜안을 제시했다. 🌱



프리미엄 날개로 새 도약

윤활유 브랜드 통합·새 단장

글. 권대웅(윤활유사업팀)



우리회사가 자동차용 윤활유 브랜드를 S-OIL SEVEN(에스-오일-세븐)으로 통합하고, 브랜드 리뉴얼 작업을 통해 제품 용기와 BI(Brand Identity), 라벨 디자인을 새 단장했다. 이에 따라 10월 2일 국내 고객에 이어 31일 국외 주요 에이전트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해 브랜드 통합·새 단장 소식을 알렸다.

우리회사는 1989년 'DRAGON'(드래곤) 브랜드를 시장에 내놓으며 윤활유 사업에 진출했다. 이후 차별화를 통한 시장 선도를 위해 2005년 전합성유 프리미엄 'SSU'(썬) 브랜드를 시장에 선보였다. 이어 2014년에 기존 SSU 브랜드를 S-OIL SEVEN으로 변경하고 국내외에 본격 소개하면서 글로벌 윤활유 브랜드로 재도약을 꾀했다.

국내외 시장에서 S-OIL SEVEN이 고급 이미지로 견고한 브랜드 인지도를 확대해 나가면서 올해 브랜드 전략 전환의 적기를 맞았다. 이에 따라 S-OIL SEVEN과 DRAGON로 이중 운영하던 브랜드 전략을 수정해 자동차용 윤활유 브랜드인 S-OIL SEVEN으로 통합하기에 이르렀다. 뿐만 아니라 5년 동안 S-OIL SEVEN에 대한 시장의 크고 작은 목소리를 수렴해 브랜드 리뉴얼 작업을 동시에 수행함으로써 브랜드 중심의 시너지를 극대화하고자 했다.

브랜드 리뉴얼은 크게 두 부문으로 시행됐다. 우선 용기를 새 단장했다. 글로벌 사업 확대에 부합하도록 제한된 공간 내 적재량을 늘리는 적재성, 장거리·장기간 수송을 고려한 내구성, 라벨 부착력 등이 강화됐다. 이와 함께 글로벌 브랜드 마케팅 활동 확대를 위해 BI를 강화하면서 라벨 디자인을 바꾸고 네이밍 정책을 체계화했다. 특히 한눈에 들어오고 읽기 쉽게 변경한 새 BI와 라벨 디자인은 S-OIL SEVEN 출시 이후 우리회사가 5년 동안 글로벌 시장 방방곡곡을 직접 발로 뛰며 확보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했다. 나아가 우리 브랜드 마케팅 자산인 구도일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윤활유 복장의 구도일을 별도로 개발했다. 한편 네이밍 정책은 색(금·적·흑·청색)과 숫자(#9 전합성 최고급, #7 반합성 고급, #5 광유 일반)를 도입해 용도와 품질에 따른 제품 차이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개선함으로써 시장 내 커뮤니케이션 용이성을 확보했다. 이에 따라 S-OIL SEVEN은 글로벌 브랜드로서 전 세계 시장에 걸친 통합 마케팅 활동을 통해 확고하게 자리매김하면서 판매 물량을 확대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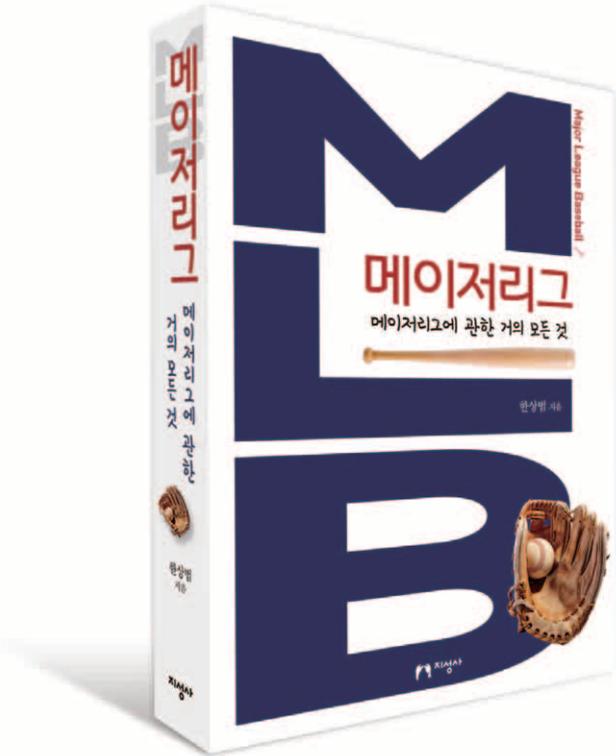
국내 고객 대상의 워크숍에 이어 글로벌 시장 대상의 홍보활동도 시행된다. 실제 제품을 해외에 본격 판매하는 2020년 초부터 주요 국가 현지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신규 제품 출시에 따른 광고를 제작해 우리가 목표하는 글로벌 시장에 신속하게 정착하고 프리미엄 브랜드로서 자리매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



책과 함께 9회말 완주

<메이저리그> 독서 후기

글. 전부순(광고팀)



메이저리그는 전 세계 야구 선수들의 꿈의 무대이자 최고 목표다. 우리나라에서는 한국인 처음으로 미국프로야구 LA 다저스에 입단해 눈부신 활약을 펼친 '코리안 특급' 박찬호 선수가 그 포문을 열었다. 그 뒤 류현진, 추신수 등 기량 뛰어난 선수들의 맹활약으로 메이저리그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도 최고조에 오른 상태다. 그러나 메이저리그 국내 팬들의 갈증을 해소하기에는 관련 정보가 매우 부족하다. 서점가에 관련 서적들이 출판됐지만 그마저도 입문자에게는 다소 어려운 서적들이 대부분이다.

이에 대한 아쉬움을 느끼던 어느 평범한 40대 직장인이 급기야 일을 냈다. 메이저리그 이야기가 나오면 술술 강의하듯 열변을 토해내며 날밤을 샅 만큼 내공을 갖춘 그가 바로 <메이저리그: 메이저리그에 관한 거의 모든 것>의 저자다. 열 가지 주제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이 책은 야구 이닝(공격과 수비를 교대하는 경기의 구분)에 맞춰 9회와 연장전 구성에 따라 지면을 나눈 것도 재치 있다.

<메이저리그>는 메이저리그 역사를 시작으로 야구 전반에 대한 지식을 흥미롭게 전개해 메이저리그를 '보는' 단계에서 '음미'하는 단계로 상승시킨다. 메이저리그 각 부문에서 활약한 선수들과 기억에 남을 만한 경기 등 다양한 이야기도 담았다. 또한 메이저리그의 계절별 흐름과 구성원들을 분석해 메이저리그 전반에 관한 풍부한 지식을 전한다. 야구 해설위원 허구연 씨는 "팬들에게는 메이저리그 전반의 교양을 쌓을 수 있는 지식서로, 어린 야구선수들에게는 메이저리거를 향한 뜨거운 열정을 심어주리라 믿는다"고 평했다.

단 한 권으로도 메이저리그를 이해하는 데 전혀 손색이 없다. 풍부한 내용과 지식이 담긴 교양서를 이 가을, 추천한다. 

66

거액의 가입비를 내고
메이저리그에 등장한
신생팀들은
기존 팀들로부터
선수 지원을 받지만

그림에도 참담하기
그지없는 성적으로
리그 수준 하락의
원흉으로 꼽혀왔다

99





한마음 단합여행

연구개발팀 야외 월례회의 후기

글. 권범진(연구개발팀)

평 대신 닭의 반전 재미

1박2일로 구상한 연구개발팀 야외 월례회의를 앞두고 주요 프로그램에 대한 여러 제안이 오갔다. 그중에서도 청명한 가을 하늘 아래서 펼쳐는 풋살 경기가 압도적인 지지를 얻었다. 하지만 주중 내내 맑던 날씨가 하필 행사 당일 번덕을 부리는 바람에 하루 종일 비가 내렸다. 비를 맞더라도 그냥 진행하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우리는 실내에서 할 수 있는 볼링으로 급히 종목을 변경했다. 10월 11일 퇴근 뒤 온산플라자(울산시 울주군 온산읍) 내에 위치한 볼링장으로 신속히 이동했다.

교대근무를 포함해 전체 44명의 인원 중 30명 이상이 볼링장으로 집결했다.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종목이라 오히려 풋살보다 많은 인원이 참여할 수 있었다. 경기가 진행될 수록 다들 왕년에 한가락 한 실력이 속속 드러났다. 물론 30점이라는 최저 기록을 보유한 사우도 있었지만 모두에게 큰 재미를 선사하며 일등 못지않은 공을 세웠다. 이날 분위기는 밤새도록 공을 굴릴 기세였다. 경기에 집중하다보니 허기진 줄도 모른 채 달린 우리는 시간을 확인하고 나서야 예약한 저녁 회식을 위해 자리를 정리했다.



무박2일의 열정적 단합회

진해해수욕장 명선교 인근에 자리한 횃집에 도착하자 푸짐한 저녁 만찬이 보기 좋게 차려져 있었다. 볼링 후일담을 나누며 한창 식사를 즐길 때쯤 개인 장기자랑 시간이 마련됐다. 분위기 메이커이자 베테랑 MC 못지 않은 입담을 자랑하는 이정환 사우가 사회를 맡았다. 그야말로 명불허전이다. 그뿐이 아니다. 내 아내가 직접 챙겨준 블루투스 노래방 마이크까지 등장하자 호응이 최고조에 달했다.

한바탕 우리만의 디너쇼를 마친 뒤 횃집 3층에 있는 숙소로 자리를 옮겨 율놀이 경기를 펼쳤다. 4개 조로 나뉜 네 군데에서 각각 시작하는 방식이다. 한 팀이 세 팀의 적과 상대하는 만큼 경기가 진행될수록 반전의 반전을 거듭했다. 최종 우승과 준우승이 가려진 뒤 남은 두 팀은 결정적인 순간 '뺨도'가 나와 승부가 뒤집어지는 진풍경도 펼쳐졌다. 수학여행 온 아이처럼 늦은 밤까지 잠 못 이룬 우리는 급기야 수평선 너머 일출 장관까

지 감상하게 됐다. 오랜만에 가슴 벅찬 감동을 느끼는 가운데 '우리회사 발전과 성장에 기여하는 연구개발팀이 되어겠다'는 포부도 함께 다졌다.

이번 야외 율례회의는 동고동락하는 사우들과 뜨거운 동료애를 쌓으면서 서로를 더욱 이해할 수 있어 뜻깊었다. 바쁜 업무 중에도 두 팔 걷어붙이고 적극 도운 준비위원들을 포함해 적극적이고 열성적으로 함께해준 사우들에게 다시 한번 고마움을 전한다. 🌟



오스트리아 빈은 클래식 음악사의 보물 같은 곳이다.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 루트비히 판 베토벤 등 그 이름만으로도 빛나는 여러 음악가가 살았던 도시다. 어느 곳을 거닐어도 아름다운 클래식의 발자취를 만날 수 있는 이 땅에서 내년 특별한 행사가 열린다. 바로 위대한 클래식 음악가 중 한 명인 베토벤의 250번째 생일파티다. 빈을 중심으로 오스트리아 전역에서 열리는 그의 특별한 생일파티로 함께 떠나보자.

선율 속 거장의 숨결

오스트리아 빈 클래식 음악 여행

글. 정은주(클래식 음악 칼럼니스트)
사진. 정은주, pixabay

Travel Information

비행시간	직항 기준 11시간 20분 소요
시차	한국보다 7시간 느림
화폐	유로, EUR € (1유로 ≈ 1,300원)
교통수단	고속열차, 트램, 지하철, 버스 등

여행 정보 추천 사이트

- ▶ 빈 관광청 공식 사이트
www.visitingvienna.com
- ▶ 오스트리아 관광청 공식 사이트
www.austria.info/us
- ▶ 베토벤 박물관 공식 사이트
www.wienmuseum.at/en



1월 1박3일 홍콩 딤섬수업	2월 2박3일 일본 미술관 탐방	3월 3박4일 베트남 크루즈 여행	4월 4박5일 태국 요리수업	5월 5박6일 몽골 유목체험	6월 6박8일 스페인 축구관람	7월 7박8일 핀란드 오로라 탐방	8월 8박9일 터키 역사기행	9월 9박11일 쿠바 올드카 여행	10월 10박12일 인도네시아 바리스타수업	11월 11박13일 오스트리아 클래식 공연	12월 12박13일 인도 명상기행
--------------------------	----------------------------	-----------------------------	--------------------------	--------------------------	---------------------------	-----------------------------	--------------------------	-----------------------------	----------------------------------	----------------------------------	-----------------------------



11박13일 오스트리아 클래식 음악 여행 일정

2020년 베토벤 탄생 250주년 주요 음악회는 연중 빈의 곳곳에서 열린다.

- DAY 1** 항공편 이용 → 빈 도착 → 호텔 투숙 뒤 휴식
- DAY 2** 베토벤 박물관 → 전통 음식 슈니첼 먹기 → 호프부르크 왕궁 → 뮤직페어라인 음악회 참석
- DAY 3** 하이든 하우스 → 빈 분리파 전시관(구스타프 클림프의 베토벤 프리즈 상설 전시) → 전통 디저트 자허 토르테 먹기 → 빈 국립 오페라극장 음악회 참석
- DAY 4** 벨베데레 궁전 내 미술관 관람 → 빈 스타일 사과 파이 먹기 → 빈 음악의 집 → 슈테판대성당 무료 음악회 참석
- DAY 5** 호텔 체크아웃 → 잘츠부르크로 출발 → 게트라이데 거리 → 호텔 투숙 뒤 휴식 → 유럽 최고령 레스토랑 슈티프츠켈러 성 페터에서 저녁 식사
- DAY 6** 미라벨 정원 → 모차르트 생가 → 잘츠부르크 특산품인 모차르트 쿨겔 먹기 → 잘츠부르크 대성당 → 잘츠부르크 전통 인형극 극장 참석
- DAY 7** 사운드 오브 뮤직 1일 투어 → 모차르트 단골 카페 토마젤리에서 아몬드 우유 한 잔 → 호엔잘츠부르크 성의 음악회 참석
- DAY 8** 호텔 체크아웃 → 빈으로 출발 → 호텔 투숙 뒤 휴식
- DAY 9** 역사 악기 박물관 → 성 페터 성당 → 빈 미술사 박물관
- DAY 10** 베토벤 기념관 → 빈 자연사 박물관 → 빈 시청사 → 나슈마르크트 시장
- DAY 11** 빈 궁전 마차 박물관 → 쉐부른 궁전 음악회 참석
- DAY 12** 호텔 체크아웃 → 공항 출발 → 귀국
- DAY 13** 기내 1박



추천 Point

모차르트와 베토벤이 죽도록 사랑했던 빈

모차르트와 베토벤의 공통점은 빈을 무척 사랑했던 음악가라는 점이다. 모차르트는 잘츠부르크, 베토벤은 독일 본에서 태어났지만, 둘 다 빈으로 건너와 생을 마감할 때까지 살았다. 당시 빈에서 그들의 인기는 하늘을 찌를 듯했다. 그 둘은 빈에서 클래식 음악사에 길이 남을 걸작을 여럿 작곡했다. 후배 음악가들 또한 빈을 고집하면서 이곳은 클래식 음악사에 있어 가장 중요한 도시로 성장하게 됐다.

빈을 가장 효과적으로 여행하는 방법 중 하나가 클래식 음악을 따라 걷는 것이다. 인터넷으로 공연 일정 확인부터 예매까지 가능하다. 불과 10년 전만 해도 빈에서 음악회를 보려면 암표를 사야 하는 경우가 많았다. 대형 극장의 유명 연주자가 아니어도 현지의 크고 작은 클래식 공연들이 색다른 감동을 선사한다. 아울러 빈에서 가까운 잘츠부르크를 2~4일 가량 둘러보기를 추천한다.

- 1 잘츠부르크 전경. 기차로 2시간 30분 정도면 도착하는 잘츠부르크는 모차르트의 이야기와 음악으로 지겨울 틈이 없다
- 2 페르디난드 1세의 조각상이 세워진 빈 구시가지의 프라이웅(freyung) 광장
- 3 빈을 상징하는 가장 오래된 슈테판 성당. 연말과 새해를 맞아 사람들은 성당 앞 광장에서 세리머니를 한다
- 4 2020년 베토벤 탄생 250주년을 맞아 빈 국립오페라극장에서 베토벤의 <피델리오>가 연주된다

클래식 음악회 에티켓 알아두세요!

❶ 공연 시작 30분 전 공연장에 도착

유럽의 클래식 음악회에 절대 지각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다. 대부분 오래 전에 지어진 극장인 탓에 객석의 길이가 길고 입구도 한 방향인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먼저 공연장에 도착한 관객들이 지각생을 위해 모두 기립하지 않도록 반드시 30분 전 공연장에 도착한다.

❷ 깔끔한 세미캐주얼과 구두로 멋 부리기

유럽 음악회 참석 에티켓 복장은 남성은 세미캐주얼, 여성은 구두에 드레스 등의 차림새다. 현지인처럼 음악회에 각별히 차려입고 가기 어렵더라도 적당한 착장을 고려해 준비한다.

❸ 연주를 마친 연주자가 관객에게 인사할 때 박수

클래식 음악회에서 조금 어려운 부분이 바로 박수의 타이밍이다. 정확한 박수 방법은 연주자가 일어서서 관객에게 인사할 때, 다른 사람들이 모두 박수하기 시작할 때 따라 치는 것이다. 공연장의 적막을 깬 첫 박수는 정말 잘 아는 곡이 아니라면 삼간다.



관광 Point

빈을 상징하는 역사 슈테판 성당과 벨베데레 궁전

★ 슈테판 대성당

건립 1359년

홈페이지 www.stephansdom.at

대중교통 빈 지하철 1·3호선 슈테판 플라츠(Stephan platz) 역 앞

빈을 대표하는 유서 깊은 성당이다. 오스트리아 최대 고딕양식 건물로 모차르트의 결혼식과 장례식이 치러진 곳이다. 빈의 시민들은 이 성당 앞 광장에서 한 해의 마지막 날과 새해 첫 날을 기념한다. 무료 음악회가 종종 열리니 홈페이지에서 확인한다.

★ 벨베데레 궁전

건립 1714년

홈페이지 www.belvedere.at

대중교통 트램 D번 스킨로스 벨베데레(Schloss Belvedere) 앞,
하궁은 트램 71번 운테레스 벨베데레(Unteres Belvedere) 하차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이곳은 상궁과 하궁 사이 프랑스식 정원이 아름답기로 유명하다. 구스타프 클림트의 대표작인 <키스>, <유디트 I>를 보기 위해 전 세계에서 많은 관광객이 이곳을 찾는다.

* <유디트 II>는 현재 이탈리아 카 페사로 미술관(베네치아)에 소장돼 있다.



3

체험 Point

2020년은 베토벤 탄생 250주년을 맞는 해다. 그의 고향 독일 본에서 여러 행사가 열리고 베토벤이 정착한 마음의 고향인 빈에서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축하 파티가 열릴 예정이다. 빈필하모닉오케스트라, 빈국립오페라극장 등 빈의 유명 클래식 연주단체와 공연장은 연중 내내 베토벤의 대표작을 연주한다. 이 대단한 생일파티는 베토벤의 공식 생일인 내년 12월 17일을 기점으로 막을 내린다. 🎵

베토벤 탄생 250주년 기념 연주회 정보

* 날짜별로 상이하므로, 각 홈페이지에서 반드시 확인

① 빈필하모닉오케스트라의 베토벤 교향곡 전곡 연주회

빈필하모닉오케스트라(이하 빈필)가 안드리스 넬슨스의 지휘로 베토벤이 작곡한 9개의 교향곡 전곡을 무지크페라인에서 연주한다. 빈필의 연주로 교향곡 전곡 연주를 감상할 수 있는 기회다.

일정 2020년 5월 23~24일 교향곡 1~3번
5월 27~28일 교향곡 4~6번, 6월 3~4일 교향곡 6~7번
6월 6~7일 교향곡 8~9번

장소 무지크페라인

예약 www.musikverein.at/kartenkauf

입장료 2019년 11월 27일(빈 기준) 티켓 오픈 예정

② 빈국립오페라단의 베토벤 <피델리오>

베토벤의 대표 오페라인 <피델리오>가 빈국립오페라단의 연주로 빈국립오페라하우스에서 열린다. 평소 무대에 흔히 오르는 작품이 아니기에 더욱 기대할 만하다.

일정 2020년 4월 22일, 25일, 28일, 5월 2일

장소 빈국립오페라극장

예약 www.wiener-staatsoper.at/en/season-tickets

입장료 16유로(약 2만 원)~239유로(약 31만 원)까지,
미취학아동 입장불가



4

세월
보듬는

어미 숲의
아늑한
품

남원
행정리 서어나무숲
운봉 삼산마을 숲숲

글·사진. 전부순



전북 남원시 운봉읍은 지리산 서북능선 끝자락 아래봉을 품고 있는 고을로서 5월이면 철쭉을 보기 위한 상춘객들로 인산인해를 이룬다. '산봉우리들이 구름 위에 둥둥 떠 있다'는 운봉은 주천면 치안센터를 기점으로 이어지는 지리산둘레길 1코스에도 속한다. 14km 옛길에는 숲길의 운치와 더불어 각각 아기자기한 이야기들을 만난다. 그 중 행정마을 북쪽에는 액운을 막아 마을을 평안케 하려는 전형적인 마을 숲, 약 1천600㎡(500평)의 서어나무숲이 자리한다.

Travel Information 9

<남원 행정리 서어나무 숲>

주소 전북 남원시 운봉읍 운봉행정길 8-9
(서어숲 체험마을)

문의 063-634-0939

<남원 운봉 삼산마을 숲>

주소 전북 남원시 운봉읍 산덕리

문의 063-634-1955





1



2

적으로 '서어숲'을 마을사업으로 내걸었다.

자작나뭇과 같잎큰키나무인 서어나무는 한자로 '서쪽나무'를 뜻하는 서목(西木)이라 적는다. 밝은 청회색에 검은 얼룩이 섞인 우람한 줄기는 근육질이다. 4~5월에 잎보다 먼저 피는 꽃, 모양과 색깔이 다른 암꽃과 수꽃이 한 나무에 달린 우리나라 온대림의 극상림(極相林) 중 대표 주자다.

처음 맨땅에는 이끼와 풀이, 그 다음에는 떨기나무, 시간이 더 지나면 벌을 좋아하는 양치나무가 자라다가 마지막은 음지나무가 주종을 이루는 최상위 단계가 극상림인데, 햇볕이 적은 음지에 살면서도 자신의 존재를 유감없이 드러내는 서어나무는 천이(같은 장소에서 시간 흐름에 따라 진행되는 식물군집의 변화)의 마지막 단계를 멋지게 보여준다.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소나무도 서어나무와는 경쟁상대가 되지 못한다.

서어나무는 '큰 나라의 강의 하류, 온 세상이 모여든 곳(大國者下流天下之交)'이라는 노자의 도덕경 구절처럼 언제나 낮은 곳에 위치하며 모

200년 비보림 행정리 서어나무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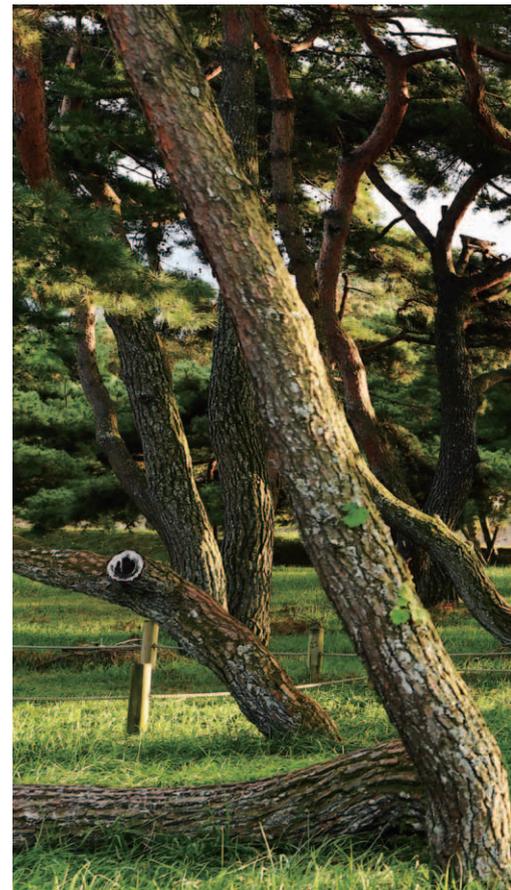
굵은 줄기가 마치 남성의 근육질 같아서 '근육질나무(muscle tree)'라는 별칭을 얻은 서어나무 100여 그루가 20m 높이를 자랑한다. 나무들 나이는 대략 200년, 180여 년 전 마을 사람들이 20~30년생 서어나무를 심어 만든 숲에 숨은 이야기 한 토막이다.

사람들이 한두 집씩 모여 마을을 형성할 무렵, 마을을 지나던 한 스님이 "이곳은 마을 터로 좋지 않으니 피하라"고 말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 말을 무시하고 살았다. 결과는 스님의 말처럼 많은 사람들이 질병과 전염병으로 죽어나갔다. 이런 사실을 알게 된 또 다른 스님이 마을을 지나면서 "마을 북쪽에 성을 쌓으면 액운을 막을 것"이라며 "만약 성을 쌓지 못하면 나무라도 심어 숲을 만들라"고 방비책을 알려줬다. 사람들은 이 말을 따라 나무를 심어 숲을

만들자 더 이상 질병이나 우환 등으로 죽는 사람이 없었다. 심지어 일제강점기나 한국전쟁 때도 행정마을에서는 단 한 사람도 죽은 자가 없었다고 한다. 풍액을 막아주고 부족함을 보완하는 비보(裨補) 기능을 담은 서어나무 숲은 이렇게 조성됐다.

나무 데크 산책길로 들어서니 따가운 가을햇살을 막아주듯 숲 안이 시원하다 못해 서늘하다. 숲을 거닐면서 나무를 바라보며 쓰다듬다가 이윽고 안아본다. 하나씩 눈여겨보면 거칠고 투박하나 전체적으로는 미끈하고 몽환적이다.

서어나무숲은 2000년 임권택 감독의 영화 <춘향전>에 등장하면서 외부에 알려졌다. 극중 성춘향이 그네 타는 모습을 이몽룡이 훑쳐보던 숲, 세월이 흘러서일까. 그네는 보이지 않고 바람만 숲 안을 스치고 돌아나간다. 그해 11월 이곳은 '제1회 아름다운 숲 전국대회'에서 마을숲 부문 대상을 받아 유명세를 떨쳤다. 2011년에는 전북 향토산업마을에 선정돼 본격



1 서어나무의 회색 껍질이 울퉁불퉁 근육질 몸매를 자랑하는 듯하다

2 음지에서 살면서도 존재를 유감없이 드러내는 서어나무는 우리나라 온대림의 극상림을 대표한다

든 것을 품는다. 바다가 가장 낮은 곳에서 세상 모든 물을 담아내듯, 서어나무가 지금까지 살아남은 이유는 자신을 한없이 낮춘 결과가 아니었을까.

풍수해로부터 마을 지킨 운봉 삼산마을 솔숲

행정마을에서 바로 앞 60번 지방도로를 건너면 지리산 줄기인 고리봉·세걸산·바래봉 정기를 힘껏 받은 삼산마을이다. 공안천이 마을을 끼고 흘러나가 지세가 수려하고 화기가 감돌아 고려말에 양씨·김씨·이씨 등이 터를 잡은 이곳에는 명품 소나무가 숲을 이뤄 숲 애호가들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멀리서도 수령 300년 이상 된 소나무 130여 그루가 마음대로 휘어지고 굽어진 모습을 한 눈에 볼 수 있다. 솔숲은 지리산 둘레길(1코스) 길목에 있어 길손들은 물론 안개 낀 날에는 소



나무 특유의 몽환적 분위기를 담으려는 사진 작가들의 발길이 잦다.

똑같은 형태는 한 그루도 없을 정도로 다양하고 색 소나무는 언제, 누가, 왜 심었는지 알려지지 않았다. 그러나 약 6천600m²(2천여 평) 규모의 솔숲은 방제림과 방풍림 역할까지 톡톡히 해낸다. 현재 산림유전자원 보호림으로 산림청 보호를 받는 귀중한 소나무들이 솔잎혹파리 병으로 상당수가 고사된 때도 있었다. 하지만 솔숲을 살리고 가꾸는데 애써온 마을주민들의

유별난 솔숲사랑 덕분에 솔가지가 살아 꿈틀대는 근육송, 한가하게 누워있는 와송, 춤을 추는 무송 같은 모습을 유감없이 볼 수 있어 감상할 따름이다.

특히 옆으로 뻗은 소나무들이 지팡이를 짚고 있어 더욱 눈길이 쏠린다. 생존을 위해 스스로 굴곡지게 자란 덕에 삼산마을은 환경부 자연생태 우수마을로 지정되었고, 2012년에는 산림청이 주관하는 전통 마을숲 복원 대상지로 선정되면서 솔숲 가치는 더욱 높아졌다. 🌳

3 남원 운봉 삼산마을은 지리산의 정기를 뽐낼 받고 자란 명품 소나무 숲이 있어 숲 애호가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4 제멋대로 구부러지고 휘어진 소나무가 숲을 이뤄 더욱 이색적이다



품격 있는 아웃풋

어휘력 기르기

글. 광동우(<탄탄한 독서력> 저자)

말과 글은 노출하고 싶지 않아도
노출되는 능력이다. 보고할 때 뿐 아니라
회의록을 작성하고 사내 인트라넷에
글을 올리거나 외부에 메일을 발송할
때도 어휘력이 드러난다. 말과 글쓰기가
직장인의 숙명이라면 어휘력은
비즈니스에 필요한 기본 역량이다.



어휘력 훈련 1. 어휘의 나열

어휘력은 내가 속한 세상

우리는 자신이 가진 정보로 주변을 해석하기 때문에 개인이 인식하는 세상은 야구공에서 우주까지 크기가 천차만별이다. 내가 알고 있는 어휘가 곧 자신의 세상이라는 말이다.

예를 들어 '사과'에 대해 연상되는 단어를 나열해보자. A는 '나무-과일-맛있다-부사-아오리-홍옥'을, B는 '스티브잡스-아이폰-혁신-변화'를 나열했다. A와 B가 자신이 떠올린 단어를 활용해 말을 하거나 글을 쓴다면 누가 더 다양하고 폭넓은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정보는 어휘의 나열로 이뤄지고 어휘의 양은 생각의 폭과 깊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어휘가 부족하면 제한된 생각과 표현으로 좁은 세상을 만나지만 다양한 어휘를 사용하면 보다 넓은 세상과 만날 가능성이 높아진다. 풍부한 어휘를 구사하는 것은 내 세계의 확장을 의미한다.

어휘 확장 훈련

ex) 연상되는 단어 나열하기

축제 A ▶ [가을] - [단풍] - [트레킹] - [캠핑] - [가족]

축제 B ▶ [K-POP] - [BTS] - [팬심] - [딸] - [데이트]

어휘력 훈련 2. 편독과 필사

반복 어휘를 내 것으로

우리는 낯선 것보다 익숙함을 추구하려는 경향이 있다. 이것은 변화하는 과정에서 오는 불편함에 대한 자기방어기재다. 여기에 익숙해지면 늘 반복되는 시간의 굴레에 갇히게 된다. 새로운 세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새로운 어휘를 접해야 한다. 영상이나 음성파일을 활용해도 되고 여행을 해도 좋다. 익숙하지 않지만 흥미로운 경험을 통해 다양한 어휘의 접촉을 즐겨야 한다. 그중에서도 독서만큼 효율적인 훈련은 없다. 시간, 장소, 예산에 구애받지 않고 깊이 있는 어휘를 만날 수 있다.

우리가 접하는 어휘들은 휘발성이 강해 1시간이 지나면 50%를 잊어버리고 한 달이 지나면 80% 이상이 사라져 버린다. 어휘를 온전히 내 것으로 만드는 데는 작문, 필사 등 여러 방법이 있지만 편독(偏讀)을 추천한다. 관련된 어휘가 반복되는 같은 종류의 책을 여러 권 읽는 것이다. 처음 경제학 책을 읽으면 용어가 어려워 이해하기가 쉽지 않지만 몇 권의 책을 읽다보면 같은 용어가 반복되면서 어휘를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익숙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어휘의 자기 습득

- ❶ 한 분야에 대한 집중 편독을 통해 용어 익히기
- ❷ 반복되는 어휘들로 단어장 만들기
- ❸ 인상 깊은 활용 문구 필사하기
- ❹ 자기 생각으로 작문하기



어휘력 훈련 3. 조직 언어 찾기

비즈니스 품격 높이는 어휘 습득

조직에서는 상대와 상황에 맞는 어휘를 많이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양한 어휘를 학습하듯 외우기보다 업무 중 반복되는 어휘를 수집하고 정리하는 훈련을 추천한다. 조직에서 사용빈도가 높은 단어를 기본 어휘로 수집하고 잘 작성된 보고서를 참고서 삼아 어떤 어휘를 사용하는지 주의 깊게 본다. 상사가 자주 발언하는 단어도 알아둬야 할 어휘다.

고급 어휘를 구사하는 것이 정답은 아니다. 읽고 듣는 사람을 생각해 이해도를 높이는 표현에 주력한다. 스스로 말주변이 없다 생각된다면 말할 때는 최대한 표현을 아끼되, 쓰기는 적극적으로 고치기를 반복하며 단어를 고르고 골라야 한다.

직급이 올라가고 경험이 쌓일수록 내뱉은 한 단어의 영향력이 커지게 된다. 품격 높은 말과 글이 곧 비즈니스의 품격을 높인다.

조직생활에 필요한 어휘력 훈련

- ❶ 조직에서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어휘 수집
- ❷ 선배의 보고서에 포함된 단어나 상사가 자주 발언하는 단어 추가
- ❸ 외부와 소통하는 업무라면 상대의 이해를 돕거나 긍정적 답변을 유도하는 단어 수집

단 하 나 의 인 생 작

책을 완독하기까지 꼼짝 않고 집중하며 몰두하는 과정이 필요하듯 가치 있는 결과물에는 그만큼 정성과 시간을 기울여야 한다. 진정한 향유란 오롯이 건디는 경험이며 그것은 곧 취미 이상의 의미로 일상을 채운다.

[정성투자형] 취미 정보



추억과 사유의 엮음

연말 즈음 쓰다 만 일기장을 뒤적이다보면 버림과 보관 사이에서 갈등하게 된다. 해가 바뀌어도 쓸 수 있는 만년 일기장을 찾거나 빈 종이를 버리는 것에 대한 죄책감을 한 번쯤 느껴본 적 있다면 수제노트 만들기를 추천한다.

북바인딩(Bookbinding)으로 불리는 수제노트 만들기는 낱장의 종이를 묶어 책으로 꾸미는 일이다. 추억 깃든 편지나 일기를 엮어도 좋고 내용 없이 백지만을 엮어 만들어도 충분히 가치가 있다.

수제노트는 종이를 가지런히 정리해 한데 모아 쌓은 뒤 한 땀 한 땀 실로 책등을 엮고 정성스럽게 묶는 과정을 기본으로 한다. 재료와 크기, 판형의 제약 없이 자유자재로 창작할 수 있는 만큼 종이뿐 아니라 나무, 가죽, 심지어 옷감도 수제노트의 재료가 된다. 기계로 제본한 기성제품과 달리 손맛 감성이 고스란히 담겨 있어 성취감과 만족감이 남다르다.

● 도움 되는 정보

<내 손으로 처음 만드는 책>

초보자도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수제본 안내서다. 소재가 되는 종이와 직물 고르기, 책의 구조와 명칭, 필요한 도구 등 정보가 담겨 있다.

늘보씨의 북바인딩 원데이 클래스

수제노트 만들기 원데이 클래스로, 총 7종류의 노트를 제작할 수 있으며 난이도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 필요한 도구는 현장에서 대여 가능하며 홈페이지를 통해 구입할 수도 있다.

홈페이지 <https://smartstore.naver.com/helloneulbo>

직접 쓴 인생 명곡

취미로 도전할 수 있는 이색 분야 중 작곡도 포함된다. 음악을 배우거나 악기를 다뤄본 적 없어도 작곡 입문에 문제가 없다. 음악의 3요소(리듬, 멜로디, 화성)를 이해하는 것에서 출발해 주어진 코드, 멜로디, 리듬의 개념을 익히면 작곡의 기본기는 갖춘 셈이다. 실용음악학원이나 개인레슨을 통한 배움을 추천한다.

방법은 다양하다. 흔히 말하는 머니코드(대중음악에 가장 많이 쓰이는 코드 진행)를 활용하거나, 떠오르는 멜로디를 놓고 그 멜로디에 어울리는 화성을 붙이는 방법이 있다. 곡보다 노랫말이 먼저 떠오른다면 가사로 시작해도 된다. 완성된 가사에 맞춰 멜로디와 코드를 붙이면 세상 단 하나뿐인 노래가 탄생한다.

최소화한 장비 기술로도 작곡이 가능하게 됐다. 통상 '미디 프로그램'으로 가장 많이 쓰는 것이 <로직>과 <큐베이스>다. 후자는 윈도우OS용이고 전자는 애플OS용이다. 최소 8기가 이상의 RAM 컴퓨터가 있어야 안정적인다. 여기에 마스터 키보드와 오디오 인터페이스, 마이크 정도면 PC를 위시한 작곡 장비로 훌륭하다.

● 도움 되는 정보

<작곡독학 가이드북>

작곡 입문자를 위한 독학 안내서다. 코드 진행, 동기 멜로디, 가사, 리듬 파트로 나눠 작곡에 필요한 기본기를 쉽게 설명한다.

<무림고수 화성학 1: 악보 보는 법>

악보 보는 법부터 차근차근 알려주는 음악 초보를 위한 입문서다. 오선지, 음자리표, 마디와 박자를 시작으로 음을 쌓아올린 화음과 화성의 특징을 익힐 수 있다.





● 도움 되는 정보

캐논 페이퍼 크래프트 사이트

무료로 도안을 다운받을 수 있는 캐논 공식 사이트다. 아기가자기한 동물 캐릭터부터 다양한 입체적인 종이모형 도안을 설명과 함께 제공한다.

홈페이지

<https://creativepark.canon>

종이천하

각종 캐릭터부터 문화유산 종이모형까지 다양한 종류의 도안을 공유할 수 있다. 재료와 공구 주문·구입도 가능하다.

홈페이지

<http://finalpaper.mireene.com>

달큰 알싸한 인생 맛

인공감미료가 들어간 술보다는 좋은 재료로 집에서 직접 빚는 가양주(家釀酒)를 선호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전통주는 술을 빚는 횟수에 따라 단양주, 이양주, 삼양주 등으로 나뉜다. 술 맛도 정성에서 비롯된다. 단양주보다는 이양주, 삼양주가 술을 여러 번에 걸쳐 빚기 때문에 깊은 맛이 나고 부드럽다. 물론 향도 더 좋고 알코올 도수도 높다.

전통 방식의 술빚기는 맷돌 갈기로 시작한다. 밀과 쌀 등 곡물을 거칠게 갈아 찌 뒤 누룩을 만든다. 매주를 빚듯 성형한 누룩에 일정 온도를 유지해 곰팡이를 키운 뒤 건조시켜 파쇄한다. 고두밥을 지어 누룩을 혼합해 치댄 뒤 최소 열흘 발효시켜 채로 거르면 막걸리가 완성된다. 막걸리를 증류시켜 얻은 소주는 시중에 판매되는 소주와 깊이가 다르다.

지역마다 전통주 빚기 소모임이 활성화되고 있어 퇴근 뒤 또는 주말을 이용해 체험할 수 있다. 🍷

● 도움 되는 정보

(사)한국전통주연구회

전통주 학교의 원조격으로 1999년부터 2만3천 명이 넘는 수강생이 거쳐 간 전통주 교육의 산실이다. 기초반부터 가양주반, 연구반, 특기반 등이 운영된다.

주소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 62

홈페이지

www.ktwine.or.kr

복순도가

울산의 전통주인 복순도가 손막걸리 외에 담금주 만들기를 체험할 수 있다. 사전에 전화로 체험 예약 문의 뒤 이용 가능하다.

주소

울산시 울주군 상북면 향산동길 48

홈페이지

<https://smartstore.naver.com/boksoondoga>

2D 뚫고 나온 캐릭터

종이를 이용해 다양한 작품을 만드는 페이퍼 크래프트(Paper Craft), 일명 종이모형이 꾸준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평면적인 일반 종이접기와 달리 도안을 그린 뒤 접거나 가위로 오려 접합시키는 방법으로 만든다. 비전문가도 어렵지 않게 입체 모형을 만들 수 있으며 손재주에 따라 얼마든 고난도의 모형까지 도전할 수 있는 분야다. 프라모델과 피규어 등 수집품목보다 재료비가 저렴한 것도 큰 이점으로 작용한다.

종이모형은 도안 종류와 난이도에 따라 선택 폭이 넓다. 기존 인터넷 카페나 유튜브를 통해 도안을 얻을 수 있지만 직접 그리는 방법도 있다. 모형을 만들 때 A4 용지나 색종이 같은 얇은 종이는 내구성이 약하기 때문에 형상을 유지할 정도 두께감 있는 종이(100~200g)를 활용하는 것이 좋다. 완성품 위에 아크릴 물감으로 색을 칠하는 것도 종이를 강화하는 하나의 방법이다. 공학적인 상식을 보태 종이모형의 기계구조를 조립하고 구동시키면 움직이는 모형도 만들 수 있다.

전통주 빚기



2019년 이달의 활력평가

정답·해설

1.

*자료 : 소방청

④ 소방의 날

우리나라는 1991년 소방법을 개정하면서 119를 상징하는 11월 9일을 소방의 날로 제정했다. 해마다 이 날에는 소방공무원을 격려하고 업무 종사자들의 긍지와 보람을 높이기 위해 기념식을 개최한다.

2.

*자료 : 한국민족문화대백과

③ 금화도감

1426년(세종8년) 2월, 조선 도성인 한성에 큰 화재가 발생해 도성 안 가옥의 6분의1이 사라지는 대참사가 일어났다. 세종은 금화도감(禁火都監)을 설치해 화재 방지와 개천·하수구의 수리 등을 담당하게 하고 화재를 이용한 도적들을 색출했다.

3.

*자료 : 행정안전부

승용차 [8]만 원

승합차 [9]만 원

안전표시가 설치된 소방용수시설(소화전·급수탑·저수조), 비상소화장치, 소방시설 주변 5m 내 정차 및 주차금지를 위반한 경우 범칙금과 과태료가 부과된다.

4.

*자료 : 119안전신고센터

④ 없음

소방서에서 운영하는 119구급대는 이송거리나 환자 수 등과 관계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요금을 징수하지 않는다. 단 보건복지부 인가를 받아 운영하는 사설 또는 병원 소속 앰블런스는 일정한 요금을 받는다.

5.

*자료 : 한국소방안전원

③ 10년

소화기 제조일자로부터 10년이 지났다면 반드시 폐기해야 한다. 소화기는 생활폐기물로 분류돼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생활폐기물 스티커를 발급받아 처리한다. 소화기를 보관할 때는 월 1회 이상 흔들어서 소화액이 굳지 않도록 한다.

6.

*자료 : 한국소방안전원

① 배추 ② 마요네즈 ③ 조리기구 뚜껑

배추처럼 잎이 넓은 채소는 산소를 차단하고 온도를 낮춰주는 역할을 한다. 마요네즈도 쏟아 부으면 기름 표면에 산소를 차단해 불을 끌 수 있다. 굵은 소금과 베이킹파우더, 큰 뚜껑 등도 소화기 대신 쓸 수 있다. 물은 불붙은 기름을 부유시킬 수 있어 부적합하다.

7.

*자료 : 한국화재보험협회

② 난방매트를 접어서 보관한다.

난방매트(전기장판·온수매트 등)는 저온화상 우려가 있으므로 이불이나 천을 덧대 사용하고, 전기열선이 접혀 끊어질 수 있으니 접어서 보관하지 않는다. 난방기를 설치할 때는 과열·복사열에 의한 화재 우려가 있어 벽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고 전력사용량이 많으므로 멀티탭에 다른 제품들과 사용하지 않는다.

8.

*자료 : 119안전신고센터

③ 피복이 벗겨진 부분은 절연테이프로 감아 계속 사용

난로는 인화성 물질이 없는 곳에 설치하고 재떨이는 타지 않는 재료로 마련한다. 차량 주유 전 정전기 제거는 필수다. 피복이 벗겨져 절연테이프 감쌀 경우 느슨해지거나 이물질이 들어가 접촉 불량으로 화재가 발생할 수 있어 임시조치 뒤에는 반드시 교체한다. 

극적 연출의 힘

바로크 시대의 회화는 연극의 한 장면처럼 명과 암을 대비해 극적 상황을 연출하는 '키아로스쿠로 기법'이 특징이다. 이탈리아 화가 카라바조가 처음 시도한 뒤 렘브란트, 귀도 레니 등이 계승했다. 이로 인해 회화는 승리나 죽음의 순간을 더욱 극적으로 보여주거나 더욱 엄숙하고 장엄한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게 됐다. 특히 렘브란트는 물감 농도와 빛의 역할을 실험하며 키아로스쿠로를 자신만의 해석으로 발전시켰다.

키아로스쿠로 기법 & 미켈란젤로 다 카라바조 <세례 요한의 머리를 받는 살로메>

<세례 요한의 머리를 받는 살로메>
1609년경 캔버스에 유채·116x140cm·마드리드 레알 왕궁





<엠마오의 저녁식사>
1601년경 캔버스에 유채·141x196cm·런던 내셔널 갤러리

극과 극 반전 매력의 이단아

성경에는 성모마리아 외에도 막달라 마리아, 베로니카, 우르술라 등 많은 성녀들이 등장한다. 바로크 시대 화가 카라바조(1571~1610)는 그 모든 성스러운 여성들을 제외하고 '살로메' 이야기에 관심을 가졌다. 헤로데 왕의 의붓딸인 살로메는 자신의 계부를 조종해서 세례 요한을 죽게 만든 악녀다. 예수의 친척이기도 한 요한은 군중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외치는 강력한 설교자였다. 헤로데 왕은 요한이 점차 인기를 얻자 그를 위험인물로 여겨 감옥에 가뒀다. 어느 날 궁에서 연회가 열렸다. 헤로데는 살로메에게 춤을 추라고 명했고 그녀는 뛰어난 춤을 선보였다. 헤로데는 그녀의 춤사위에 반해 갖고 싶은 것은 무엇이든 주겠다고 말했다. 소녀는 어머니인 헤로디아스 왕비가 시키는 대로 요한의 머리를 달라고 청했다. 왕은 손님들 앞에서 한 약속을 어길 수 없었다. 결국 요한은 처형당했고 살로메는 춤의 대가로 은쟁반에 받쳐진 요한의 머리를 얻게 된다. 카라바조는 그 기괴한 이야기를 바탕으로 요한의 머리를 받는 살로메의 모습을 여러 번 그렸다.

카라바조는 천재적인 화가로 당시 교황과 추기경들의 신임을 받았으나 실은 구제할 수 없는 악당이기도 했다. 권력자들의 총애

를 업고 도둑질과 폭행을 일삼던 그는 1606년 로마에서 살인을 저지르고 이탈리아 남부로 도망쳤다. 1609년 나폴리에 머물면서 그는 자신의 후원자인 추기경에게 용서를 빌며 몇 장의 그림을 보냈는데 이 중 하나가 현재 스페인 마드리드 레알 왕궁에 소장돼 있는 <세례 요한의 머리를 받는 살로메>다.

강렬한 대비가 주는 충격과 자극

그림 속에서 붉은 옷을 입은 살로메는 쟁반에 놓인 세례 요한의 목을 짐짓 외면한다. 그녀의 얼굴은 그저 차분할 뿐 그 어떤 사악함도 느껴지지 않는다. 빛과 어둠은 극명하게 대비되면서 그림이 보여주는 끔찍한 상황을 적나라하게 드러낸다. 쟁반에 놓이는 세례 요한의 머리를 자세히 보면 입이 벌어져 있다. 성인은 아마도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에 비명을 질렀을 것이다. 살해된 사람에 대한 카라바조의 관찰은 너무도 자세하고 으스스하다. 그림 뒤편에는 칠흙 같은 어둠뿐 아무 배경도 없다.

그림에 등장하는 네 명의 얼굴, 즉 살로메, 요한, 망나니, 노파 중에서 살로메의 유모인 듯한 노파는 유일하게 인간의 감정을 가진 존재로 보인다.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막 벌어진 비극을 슬퍼한다. 화가는 이 노파를 악령과도 같은 인간들 사이에 배치해 보는 이

의 감정을 한층 끌어올린다.

그런데 그림을 보면 살로메와 요한, 망나니의 어깨 부분이 유독 환한 빛을 받고 있다. 전기 힘으로나 만들 법한 강한 조명이 존재했을 리가 없던 때다. 화가가 활동하던 1600년대 역시 양초나 햇불이 전부였다. 현재의 전기 조명에 비할 수 없을 정도로 어둡다. 살로메와 요한의 얼굴을 비추는 강렬한 빛과 대비되는 어둠은 카라바조의 상상 속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실제보다 훨씬 더 강한 빛과 어둠으로 극단적 대비효과를 사용해 만든 작품을 명암이라는 뜻의 이탈리아어인 '키아로스쿠로'라고 부른다. 카라바조는 15세기에 발전한 선 중심의 원근법을 거부하고 공기와 광선의 작용으로 생기는 색채와 명암의 변화를 통해 입체감을 드러냈다. 그는 자신이 개발한 키아로스쿠로 기법으로 그림에 한층 더 극적인 드라마를 불어넣었다. 드라마틱한 기법 덕분에 카라바조의 그림은 당대에 큰 인기를 얻었다.

문제는 화가 본인의 인생 역시도 그림 못지않게 극적이었던 데 있다. 1610년 카라바조의 후원자 중 한 사람이었던 보르게세 추기경이 교황에게 카라바조의 사면령을 받는데 성공했다. 희소식을 듣고 카라바조는 나폴리에서 배를 타고 로마로 가다 토스카나의 한 항구에서 체포됐다. 그에 대한 사면령을 듣지 못한 지역 경찰이 카라바조를 구금했던 것이다. 나중에야 오해가 풀렸지만 그가 타고 온 배는 이미 항구를 떠난 뒤였다. 카라바조는 다급히 육로를 통해 로마로 향하다 열병에 걸려 어이없이 세상을 떠났다. 그의 나이 불과 서른아홉에 찾아온 때 이른 죽음이었다. 🌻



온 국민 어깨 들썩♪ ‘으라차차 댄스’

2019 S-OIL 광고캠페인



보는 광고에서 함께 춤추며 부르는 광고로

해마다 시대적 화두를 광고로 풀어온 우리회사는 2018년 구도일과 시엠송(이하 CM송)을 통해 시대상을 대표하는 ‘은퇴중년’과 ‘워킹맘’을 응원하는 <좋은 기름으로 으라차차> 캠페인을 진행했다. 녹록하지 않은 현실과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사람들의 고민은 여전히 현재 진행 중이다. 올해 광고캠페인도 같은 곳에 초점을 맞췄다.

지난해 상영된 영화 <보헤미안 랩소디>는 싱어롱(작품 속 노래를 관객들이 함께 따라 부르는 것) 열풍을 불러일으켰다. 영화 속 출연자와 관객이 하나 되는 장면은 그 자체로 감동이다. 우리회사는 모두 알고 좋아하는 구도일과 CM송을 통해 보기만 하던 광고에서 따라 부르는 광고로서 2019년 <좋은 기름으로 으라차차 시즌2>를 만들었다. 하나의 가사가 마치 주문처럼 입가에 맴도는 싱어롱에 더해 좋은 에너지를 충전하는 ‘으라차차 댄스’까지, 2019년 새 광고캠페인의 면면이 풍성하다.

전 국민 응원하는 주문~

‘으라차차 라차차 라차차’

함께 부를 수 있는 하나의 가사, ‘으라차차 라차차 라차차’는 입가에 맴돌아 우리 모두에게 힘을 주는 주문이다. 우리회사는 지난해 워킹맘과 은퇴중년을 응원하는 록 버전과 트로트 버전 CM송을 선보인 데 이어 누구나 따라 부르기 쉬운 단순하고 반복적인 가사의 ‘으라차차 CM송’을 개발했다.

1

이차 저차 ♪ 좋은 기름 널자 ♪ 으~라차차 라차차 라차차 ♪

여차 저차 ♪ 쪽쪽 나가보자 ♪ 으~라차차 라차차 라차차 ♪

나는 에쓰오일 에쓰오일 에쓰오일 ♪ 우리 에쓰오일 에쓰오일 에쓰오일 ♪

좋은 기름이니까 ♪ 좋은 기름으로 으라차차 ♪

2

좋은 에너지
충전시켜 주는 흥부자~
‘으라차차 댄스’



새 광고에서 주목할 또 하나의 중요한 지점은 CM송에 맞춰 개발한 ‘으라차차 댄스’다. 케이팝(K-POP) 안무가 권재승 씨가 창작한 ‘알통춤’, ‘헛들춤’ 등 재미있는 댄스가 시청자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한다. 40여 명에 이르는 대규모 인원이 권재승 안무가의 창작 댄스를 군무로 펼쳐 보이고, 이 가운데 예능 프로그램에 동반 출연해 찰떡궁합을 보여준 가수 김종국 씨와 매니저 김갑진 씨가 카메라로 등장해 재미를 더했다. 권재승 안무가는 “댄스는 대중의 호감과 참여를 이끌어내는 효과적인 수단으로, 에스-오일의 응원메시지를 으라차차 댄스의 힘찬 안무에 담아 전달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3



다양한 연령층 아우르는 바이럴 영상콘텐츠

모바일 기기와 소셜미디어를 통해 소통하는 세상에서 기업의 마케팅 커뮤니케이션도 예외가 아니다. 그 경향에 맞춰 TV광고와 더불어 다양한 형태의 바이럴 영상을 제작했다. 가수 김종국 씨와 매니저 김갑진 씨가 주인공으로 출연해 복싱링에서 구도일 탈인형과 함께 ‘으라차차 댄스’를 춘다. 안무가, 댄스 크루와 구도일패밀리 탈인형의 댄스 영상 등도 있다. 우리 회사는 이들 영상을 소비자들이 이용하는 채널을 고려해 맞춤형으로 노출한다. 이와 함께 댄스 영상 확산을 위해 10월 22일~11월 3일 ‘틱톡 해시태그 챌린지 이벤트’를 진행하는 한편, 10월 26일 페이스북을 통해 ‘댄스 따라하기 가이드’를 공개해 광고 속 댄스를 쉽게 배우고 즐기도록 하고 있다.



시대를 응원하는 긍정에너지~ ‘좋은 기름으로 으라차차’

2006년 국민 CM송이 2018년 <으라차차 시즌1>을 거쳐 2019년 <으라차차 시즌2>로 새롭게 탄생한 현재, 끊임없이 진화하는 우리 광고캠페인 속에 시공을 관통하는 핵심 키워드는 ‘희망’과 ‘응원’이다. 우리는 구도일을 통해 만나고, CM송으로 기분을 북돋으며, 으라차차 댄스로 모두에게 힘을 주는 브랜드를 목표한다.

우리 회사는 신규 광고캠페인과 연계해 11월 13일~12월 12일 전국의 우리 계열주유소·충전소와 홈페이지에서 약 60만 개 경품을 제공하는 ‘좋은 기름으로 으라차차! 구도일패밀리 경품대잔치’도 진행한다. 



새 얼굴로 세계인과 만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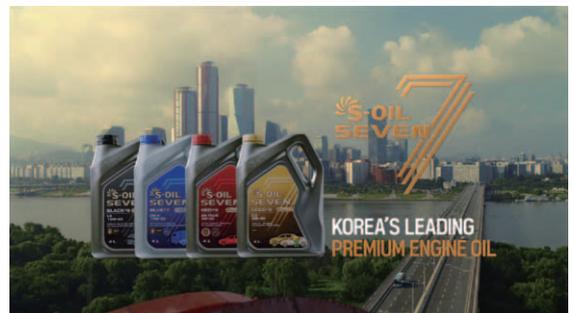
윤활유 S-OIL SEVEN 광고캠페인

우리 윤활유 브랜드 S-OIL SEVEN(에스-오일-세븐)이 신규 광고캠페인을 앞세워 고객과 만나고 있다. 브랜드 리뉴얼을 통한 브랜드 가치 제고 일화의 새 광고캠페인은 10월 국내 론칭에 이어 11월 전 세계에 공개된다.

스토리라인은 구도일 세븐으로 구성된 엔진오일 구조대가 운전자의 차량 상태를 확인하고, 운전자는 적극적인 '바꾼다'는 액션을 취해 더 나은 차량으로 나아간다는 내용이다. 특히 '에스-오일 세븐으로 바꾸면 차가 바뀐다'는 슬로건은 브랜드 리뉴얼로 디자인, 용기 등이 '바뀌었다'는 점을 암묵적으로 전한다. 또한 고객의 적극적인 행동으로 더 나은 경험에 도달할 수 있음을 주시시킨다.

이번 광고캠페인은 S-OIL SEVEN 브랜드의 인지도 제고를 최우선 과제로 설정한 가운데 이에 부합하는 전략 방안들을 다각도로 내포하고 있다. 우선 우리 윤활유 브랜드 이미지를 '한국 윤활유의 선두주자'로서 자리매김하도록 최근 확대되는 한류를 활용했다. 아울러 우리 마케팅 활동의 주요 자산인 구도일을 활용하되 윤활유 브랜드의 특성과 기존 연료 사업 간 차별화를 위해 기존 구도일에 윤활유 관련 특성을 추가한 별도의 '구도일 세븐'을 개발했다. 이러한 시도는 스테레오타입의 윤활유 브랜드 광고와 자연스러운 차별점을 이루고, 장기적으로는 세계 시장을 향한 판촉활동에 구도일을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윤활유 S-OIL SEVEN의 새 광고는 전 세계 고객 대상 송출을 목표로 집행 계획이 수립돼 있다. 이에 따라 확장일로의 온라인·모바일 시장에서 우리 브랜드 주목도를 높이는 전략을 설정한 가운데 인트로 컷을 영화 타이틀 영상과 유사한 형태로 제작했다. 한편 모델계에서 떠오르는 신예인 댄박(Dan Park) 씨를 기용해 완성도를 높였다. 🌱





미래 성장 이끄는 준법경영

준법경영시스템 국제표준 ISO 19600 인증 획득



우리회사가 10월 29일 국내 제조업계 최초로 준법경영시스템 국제표준인 ISO 19600 인증을 획득했다. ISO 19600은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2014년 12월 제정한 준법경영시스템 부문의 국제표준이다. 이는 부패방지 국제상업회의소(ICC) 규칙, 윤리·준법에 관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우수 사례 지침, 유엔 부패 협약 등 국제기관들의 준법 확약 지침과 ISO 표준이 결합된 것으로서 모든 조직에 적용 가능한 지침을 제공한다.

우리회사는 2013년 준법지원인제도 도입을 결정하고 2014년부터 준법시스템을 통한 체계적인 준법경영을 실천해왔다. 우리의 준법경영시스템은 대외적으로도 우수 사례로 인정돼 국내외 우수 기업들의 벤치마킹 대상이 됐다. 이 가운데 ISO 19600 인증 획득으로 준

법 정책, 준법 리스크의 관리, 모니터링과 성과 검토 등 준법경영 시스템이 글로벌 수준에 부합하고 효과적으로 설계해 운영하고 있음을 국제적으로 공인 받게 됐다.

우리회사는 핵심가치인 정도(Integrity)를 위시해 준법경영과 윤리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체계적이고 선진적인 준법시스템과 윤리경영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모든 임직원이 경영활동과 관련된 법규와 규정을 숙지하고 일상 업무에서 자연스럽게 준수하는 기업문화를 견고히 정착시켜 실천하고 있다. 🌱

- | | | |
|-------------------|---|------------------------|
| ISO 19600
기대효과 | ▶ 글로벌 수준의 준법 경영 가능 | ▶ 문서관리 체계 수립 |
| | ▶ 정부 감사 및 감독기관의 이행상태에 대한 심사 시 사전 대응 체계 마련 | ▶ 자발적 모니터링 기능 강화 |
| | ▶ 지속적 관리체계 구축을 통한 실시간 관리 | ▶ 기업 신뢰도 증가, 기업 이미지 향상 |

S-OIL NEWS



다우존스지속가능경영지수 '월드' 기업 10년 연속 편입 인증 시상

우리회사가 10년 연속으로 다우존스 지속가능경영지수(Dow Jones Sustainability Indices, 이하 DJSI) '월드' 기업에 선정됐다. 오일·가스 산업 분야에서 10년 연속 DJSI 월드 기업에 선정된 것은 국내뿐 아니라 아시아 지역 정유사 중 최초이자 유일한 사례다. 인증 시상식은 DJSI 국제 콘퍼런스가 열린 10월 22일 신라호텔(서울시 중구 동호로)에서 진행됐다. 올해 DJSI 월드 지수에는 전 세계 시가총액 상위 2천526개 글로벌 기업 중 12.6%에 해당되는 총 318개 기업이 편입됐으며, 국내기업 가운데 우리회사를 포함해 단 19개 기업만이 이름을 올렸다.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 후원

우리회사가 긴급 지원이 필요한 위기 가정과 취약 계층을 위해 10월 8일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에 후원금 1억 원을 쾌척했다. 우리회사는 가장의 사망, 질병 등으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위기 가정의 자립을 지원하고 노인, 다문화, 아동·청소년 등 취약 계층 대상의 기초 생필품 지원으로 생계 안정을 돕기 위해 2017년부터 해마다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에 후원금을 전달하고 있다.

저소득가정 난방유 지원

에너지 빈곤층에 난방유를 지원하는 ‘호프 투 유, Hope to You(油)’ 캠페인을 통해 우리회사가 10월 15일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 2억 원을 전달했다. 이 기부금은 전국 사회복지기관을 통해 선정된 조손가정과 독거노인 200여 세대에 난방유(등유)를 제공하는 데 쓰인다. 우리회사는 정유업종의 특성과 연계된 사회공헌의 일환으로 2015년부터 난방유 지원에 나서 경제적인 여건으로 겨울철 기름보일러를 사용하지 못하는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고 있다.



지배구조 최우수 기업 선정

10월 22일 한국거래소·한국기업지배구조원이 주최한 올해 ESG 우수기업 시상식에서 우리회사가 지배구조 최우수기업으로서 상을 받았다. 이로써 우리회사는 ESG 우수기업상이 제정된 2011년 이후 일곱 차례나 수상 기업에 선정되는 기록을 세웠다.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은 상장기업의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지속가능경영을 강화하기 위해 2002년 설립된 한국거래소 산하 비영리단체다. 해마다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환경경영·사회책임경영·기업지배구조 평가를 실시하며, 2011년부터는 지속가능경영 성과가 탁월한 기업 대상으로 ESG 우수기업 상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는 한국거래소에 등록된 상장기업 중 우리회사를 포함해 비금융권 8개 기업, 금융권 5개 기업 등 총 13개 기업만이 ESG 우수기업에 등극했다.

울산복지재단 온산 우렁이 농법 쌀 수매

울산복지재단이 온산지역에서 생산된 친환경 우렁이 쌀 수매에 나섰다. 수매 행사는 10월 23일 온산농협 삼평 경제사업장에서 진행됐다. 이를 통해 울산복지재단은 우렁이 농법으로 생산된 벼 3천700포(40kg들이) 3억 원 상당을 매입했다. 이 쌀은 온산지역 저소득가정과 사회기관·단체에 전달돼 어려운 이웃을 위해 쓰인다. 우리회사는 온산지역 작물 소비를 촉진해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지역사회 어려운 이웃에게 보탬이 되기 위해 농작물 수매를 지속해 왔다. 이 가운데 2001년부터 현재까지 매입한 쌀은 11만749포(40kg들이)로 74억 원 상당에 이른다.



마포인재육성장학재단 후원

본사 사옥이 위치한 서울 마포 지역사회의 청소년 지원을 위해 우리회사가 10월 11일 마포인재육성장학재단에 5천만 원을 전달했다. 이 후원금은 마포인재육성장학재단을 통해 저소득가정 학생을 위한 '에스-오일 햇살나눔 장학금'으로 쓰인다. 이를 비롯해 우리회사는 지역사회 나눔 실천의 일환으로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에 본사 사옥을 개방해 무료 공연을 개최하는 한편 송편 나누기, 저소득가정 지원 등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국내영업본부 하반기 마케팅 아카데미 교육

국내영업 일선에서 활약하는 직원 대상의 하반기 마케팅 아카데미가 올해 10월 22~23일과 11월 12~13일 2차로 나누어 시행됐다. 국내영업본부 80여 명이 참가한 이번 교육은 사내강사 활용 비중을 대폭 늘리고 전문적인 강의 내용을 확충해 내실을 다졌다. 참가자들은 각각 이틀에 걸친 교육을 통해 주유소 미래와 사업모델 혁신, 내수영업 관련 물류의 이해, 업무효율 강화 ‘스마트 워크’ 등 외부특강을 비롯해 유외사업 현황과 전망, 주유소 네트워크 사업 현황, 임원 특강 등 사내강사의 알찬 강의를 접했다. 특히 문성필 대표(백산주유소)를 특별강사로 초청한 가운데 생생한 사례 연구를 진행하는 한편 공장 소속 직원들이 사내강사로서 내수영업 관련 공정의 이해를 도모하는 강의를 펼쳐 값진 정보를 제공했다.

유류수송사 대표자 간담회

국내시장 점유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가고 있는 우리회사가 유류수송사 대표자 간담회를 열어 동반성장의 길을 모색했다. 10월 25일 경기도 여주 일원에서 개최된 간담회에서 우리 임직원과 수송사 대표자들은 유류수송을 적기에 안전하게 수행하고 수송 인력의 친절 서비스 향상에 기여하는 방안들을 논의했다. 우리회사는 장기계약을 통해 우리 제품 수송을 책임지고 있는 수송사와 상생협력을 강화하고 유류차량 안전관리를 함께 고민하기 위해 해마다 간담회를 실시하고 있다.



장벽 넘어 힘찬 질주

장애인 감동의 마라톤 발대식
터키 이스탄불 국제 마라톤 대회 참가



장애와 비장애를 넘어선 '장애인 감동의 마라톤'이 10월 31일 발대식에 이어 11월 3일 이스탄불 국제 마라톤 대회에 도전했다. 우리회사는 한국장애인재활협회와 함께 발대식을 통해 이봉주 선수단장과 장애인 마라토너, 동반주자 등 22명으로 이뤄진 감동의 마라톤 선수단을 꾸리고 이스탄불 국제 마라톤 대회의 풀코스과 15km 코스에 참가를 지원했다.

앞서 올해 4월에는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장애인 참가자와 시민 등 약 1천600명이 참가한 가운데 '감동의 마라톤' 국내 대회를 개최해 장애인·비장애인 동반주에 대한 관심을 환기했다.

우리회사는 장애인들의 도전정신과 재활의지를 고취시키고, 재활스포츠의 활성화를 돕기 위해 2006년 싱가포르 국제 마라톤 대회부터 14년째 장애인 마라톤 선수들의 해외 대회 참가를 후원하고 있다. 올해까지 그리스, 독일, 호주, 싱가포르, 미국, 네덜란드 등 9개국에서 열린 대회에 318명의 참가를 후원했다. 🌻



START

FINISH





11.02

김호정 상무보(홍보팀) 모친상

보직변경

10.14

박찬필(2급.LPG팀)→
LPG팀(서부영업지원팀 파견)

김영호(2급.LPG팀-서부영업지원팀 파견)→
LPG팀(광주지사 파견)

11.01

정순영(일반사무직1급.구매관리팀)→
총무팀

11.07

변수경(일반사무직2급.전주지사
관리담당)→서부영업지원팀(관리담당)

이순영(일반사무직2급.서부영업지원팀
관리담당)→광주지사(관리담당)

결혼

10.26

박관우(프로젝트추진2팀)
김서은(공정혁신2과)
조승운(Akylation2과)

10.27

호종표(용도개발/기술지원팀)

11.02

추영준(기계기술팀)
김태환(동력5과)
홍준표(HYC공정팀)

11.09

이영석(군산저유소)
박형욱(올레핀공정팀)
서준석(탈황2과)
이상호(기계1과)

11.16

정광운(계전설계팀)

11.17

김성탁(교대과) 딸

11.23

강현재(장치1과)

부음

10.09

오승석(아산지사) 빙부

10.17

김재기(동부영업지원팀) 부친

10.18

안재현(경영기획팀) 외조모

10.20

이승훈(제품운영1과) 빙모

10.23

이수해(동력2과) 모친
강승호(Olefin Downstream
사업기획팀) 외조모
김민성(수급운영팀) 조부

10.28

진용인(프로젝트기술1팀) 외조모

10.29

김순섭(아로마틱생산2과) 부친

11.01

이병기(유황2과) 부인

11.04

권성훈(동력2과) 빙부

11.05

김판석(아로마틱영업팀) 모친

독자마당

사내보 <S-OIL>은 사우 여러분의 참여와 관심으로 만들어집니다.
 다양한 지면에 참여 기회가 열려 있습니다.
 문의: sabo@s-oil.com



<달콤한 퇴근길> 시 창작
 내면의 꿈을 발견내 희망을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좋았습니다. 조영식(계기3과)



<함께하는 풍경> 세계에너지총회 참가
 전문가들이 총집결하는 세계 최대 에너지 행사에
 참여한 소식을 관심 있게 읽었습니다. 민미정(남부순환로
 주유소, 울산시 울주군 청량읍 남부순환도로)



<두런두런 이야기방> 페로제도 여행기
 아이슬란드보다 한층 더 생소한 페로제도를 기사로
 접할 수 있어 좋았습니다. 정주영(안전대응팀)



<두런두런 이야기방> 어머니 동행 추석 이야기
 어느 새 나이 드신 부모님이 이제서야 눈에 보입니다.
 너무 마음 아프고 공감 가는 기사였습니다.
 허강미(원주지사)



<꽃청춘 수학여행> 인도네시아 발리 바리스타 여행
 가족들과 함께 체험여행을 가보고 싶습니다.
 최영심(Akylation1과 전전배 사우 가족)



<성장달리> 단합력 기르기
 다채롭고 폭넓은 내용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박희순(고객충남 아산시 순천항로)



<이달의 활력평가> 한글
 한글에 관한 새로운 발견이네요!
 배정이(백마주유소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중리공단로)



<캔버스 연구실> 산드로 보티첼리 '봄'
 영화의 시대적 배경과 물감에 관한 과학이야기까지
 정말 흥미로웠습니다.
 오채영(탈항1과 오세역 사우 가족)



Quiz 01 다른 그림 찾기

두 사진 가운데 서로 다른 곳은 어디일까요? (총 다섯 군데)



Quiz 02 우리말 바로 쓰기

일상에서 사용하는 외래어나 잘못된 우리말 표현을 올바르게 써주세요.

01

이 자리를 ① 빌어 ② 빌려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02

내가 응원한 팀이 3위에
① 은꺾어. ② 등극했어.

10월호 퀴즈 정답

Quiz 01 다른 그림 찾기



지난호
퀴즈 당첨자

블루투스스피커

김재완(정유2과) • 이상주(윤활생산2과) • 박정현(VDU과) •
이영준(유황1과)

휴대폰보조배터리

차필근(VDU과) • 이현우(Alkylation2과) • 이정구(동력6과) •
이용문(동부네트워크관리팀)

Quiz 02 우리말 바로 쓰기

01

태풍 피해로 마음이
①갈갈이 ②갈가리
찢긴 주민들을 위로했다.

→

태풍 피해로 마음이
'갈가리' 찢긴 주민들을
위로했다.

♫

'갈가리'는 가리가리
(여러 가닥으로 갈라지거나
찢어진 모양)의 준말이며,
'갈갈이'는 가을갈이를
일컫는 말입니다.

02

우리 딸은 정말
①새침데기야.
②새침떼기야.

→

우리 딸은 정말
'새침떼기'야.

♫

새침한 성격을 지닌
사람을 말하는 단어는
'새침떼기'입니다.
새침떼기, 새침떼기 모두
잘못된 표현입니다.



올해 사보 표지는 스마트워크(Smart Work) 제도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에스-오일 리더의 일하는 방식(S-OIL leaders' way of working) 캠페인의
세부 항목들을 한 컷 그림으로 구성해 채워갑니다.